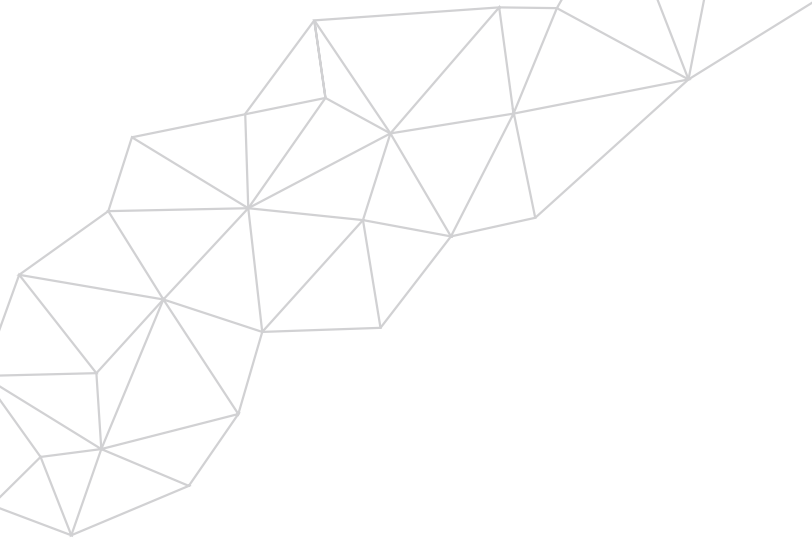


한·러 수교 30년
특별연구자료

한·러 경제 협력의 분야별 확대 방안



한국수출입은행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CONTENTS

<요약>	07
I. 머리말	12
II. 한·러 경제 협력의 새로운 방향의 필요성	14
III. 한·러 교역 협력	26
IV. 한·러 투자 협력	44
V. 한·러 에너지 협력	54
VI. 한·러 경제 협력 확대 방안	80
<부록>	90
<참고문헌>	102

연구집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원고감수	소장	조양현
원고작성	지역연구팀 팀장	오경일
	지역연구팀 선임연구원	조영관
	산업경제팀 선임연구원	성동원

표 차례

<표 1> 러시아의 산업발전 전략 및 정책	17
<표 2> 푸틴 4기 러시아의 부문별 산업발전 정책	18
<표 3> 비에너지 부문의 수출 성장률 목표	18
<표 4> 제조업 생산 증가율 목표	18
<표 5> 국가 프로젝트 "국제협력과 수출"의 부문별 수출 목표	21
<표 6> 국가 프로젝트 "국제협력과 수출"의 하위 프로젝트와 주요 내용	22
<표 7> 혁신산업 관련 발전 정책	23
<표 8> 러시아 산업정책 부문별 지원 기관	23
<표 9> 한국의 10대 교역국 (2019년)	26
<표 10> 한국의 대러시아 10대 수출품목의 금액 및 비중(MTI 3단위 기준)	30
<표 11> 한국의 대러시아 20대 수출품목의 변동 및 비중(MTI 3단위 기준)	32
<표 12> 러시아의 브랜드별 신차 판매 비중(2009년, 2019년)	33
<표 13> 한국의 대러시아 10대 수출품목의 CA 지수(HS 4단위 기준)	35
<표 14> 러시아의 대EU 주요 교역 품목의 수출입 비중(2009·2019년)	42
<표 15>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금액과 신규 법인 수 (1992~2019년)	46
<표 16>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금액과 신규 법인 수(1992~2019년)	48
<표 17>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제조업 내 중분류(1992~2019년 누적)	50
<표 18> 러시아 LNG 생산 현황 및 계획	62
<표 19> 러시아의 원유와 천연가스(LNG) 현황	63
<표 20> 한국의 대러시아 에너지 개발 사업	67
<표 21> 한국의 대러시아 에너지 개발 장비 및 조선 협력	68
<표 22> 한·러 가스 파이프라인 추진	71
<표 23> 러시아의 2035년까지 에너지 생산 및 수출 목표	72
<표 24>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의 에너지 생산 및 수출 목표	73
<표 25> 러시아와 중국의 주요 에너지 협력	77
<표 26> 러시아와 일본의 주요 에너지 협력	79
<표 27> 신북방정책 관련 추진 일지	90
<표 28> 러시아 현지 석유화학업체	96
<표 29> 러시아에 진출한 외국 석유화학업체	99

그림 차례

<그림 1> 국제유가와 러시아 경제성장률 변동	14
<그림 2> 국제유가와 러시아 수출 규모의 변동	15
<그림 3>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1992~2019년)	27
<그림 4> 한국의 교역에서 러시아의 비중 추이	28
<그림 5> 러시아의 교역에서 한국의 비중 추이	28
<그림 6> 한국의 대러시아 10대 수출품목의 비중 추이	31
<그림 7>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품의 수출 동향	31
<그림 8> 한국의 대러시아 품목별 수입 비중 추이	36
<그림 9> 러시아의 국가별 교역 비중(2019년)	37
<그림 10> 러시아의 지역별 교역 비중(2019년)	37
<그림 11> 러시아의 교역(2000·2010·2019년)	37
<그림 12>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2010·2015·2019년)	38
<그림 13>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2010년)	39
<그림 14>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2019년)	39
<그림 15> 러시아의 주요 수입품(2010·2015·2019년)	39
<그림 16> 러시아의 주요 수입품(2010년)	40
<그림 17> 러시아의 주요 수입품(2019년)	40
<그림 18> 러시아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2019년)	43
<그림 19> 러시아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 (2019년)	43
<그림 20> 러시아의 대EU 및 중국 수출 비중	43
<그림 21> 러시아의 대EU 및 중국 수입 비중	43
<그림 22>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1992~2019년)	45
<그림 23>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 (1992~2019년)	47
<그림 24>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투자 부문과 비중(1992~2019년 누적)	49
<그림 25>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투자 부문과 비중(1992~2009년 누적)	49
<그림 26>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제조업 내 중분류(1992~2019년 누적)	50
<그림 27>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제조업 내 중분류(1992~2009년 누적)	51
<그림 28> 한국의 연도별 원유, 천연가스(LNG), 석탄 수입액(1990~2019년)	55
<그림 29> 러시아 원유 수출의 지역별 비중	57

<그림 30> EU 전체 상품수입에서 에너지의 비중(2015~19년 1분기)	57
<그림 31> EU 전체 상품수입에서 러시아산 에너지의 비중(2015~19년 1분기)	57
<그림 32> 유럽의 천연가스 수입 규모 추이	58
<그림 33> 유럽의 국가별 에너지·광물 수입 비중 변동(2008~2019년)	59
<그림 34> 유럽의 에너지 부문별 소비 비중(1970~2018년)	60
<그림 35> 세계 지역별 에너지 소비 비중(1970~2018년)	60
<그림 36> 러시아의 지역별 원유 수출 규모	61
<그림 37> 러시아 야말 LNG 및 북극 LNG 2	62
<그림 38> 러시아 경제에서 에너지 부문의 비중	63
<그림 39> 한국의 대러시아 에너지 수입 규모와 비중	65
<그림 40> 한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자원 수입 비중 추이	65
<그림 41> 남·북·러 가스관 노선도 구상안	70
<그림 42>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ESPO)	75
<그림 43> 러시아의 동부 지역 가스관 현황	78
<그림 44> 한·중·러·일 전력망 연계	86
<그림 45> 신북방정책의 비전과 4대 목표	91
<그림 46> 북방경제협력 대상국	92
<그림 47> 9 Bridge 전략	93

요 약

한·러 경제 협력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

- 한국은 1990년 9월 30일 소련과 수교한 이후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와 현재까지 30년 동안 정치, 경제 관계를 맺고 있음. 이는 사회주의 종주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소련(러시아)과의 협력은 정치적으로는 한반도 주변 4강과 모두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양국 간의 교역 및 투자 협력과 함께 유라시아 대륙과 에너지 운송망, 물류망 등을 구축하는 협력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정치적으로는 2008년부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경제적으로는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고, 에너지 및 건설 인프라, 조선, 운송물류, 관광, 의료 부문에서 양국 간 협력이 증대되고 있음.
 - 한국의 북방정책은 1990년 한·소 수교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과거의 북방정책을 계승하되, 새로운 차원의 협력으로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신북방정책을 제시하였음.
- 현재 한·러 협력의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함.
 - 가스관 연결, 철도 연결 등 기존의 대규모 협력사업들이 남북 관계 및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적 문제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러시아 국내 제조업 활성화 정책, ICT 산업발전 정책 등에 대응하여 관련 분야의 협력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신북방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7년 시작된 신북방정책은 정부 내 관련 부서의 설립과 관련 정책

추진에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북핵 문제 미타결 등 대외적인 정치, 경제 환경의 영향으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향후 주요 프로젝트 추진을 지속하되,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항만 인프라 개발, LNG 터미널 건설 부문 협력, 극동러시아의 경제특구 지역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진출 등 협력 유망 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반도와 인접한 극동러시아 지역에서의 교통, 물류, 인프라 건설 협력, 제조업 투자 등 다양한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남·북·러 협력 사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한·러 교역 및 투자 협력

- 한·러 교역의 증대에 따라 2019년 러시아는 한국의 9대 교역국으로 부상
 - 양국의 교역 규모는 교역 첫해인 1992년 1억 93만 달러에서 2019년에는 224억 달러로 늘어남. 이에 따라 러시아는 1999년 한국의 23대 교역국, 2009년 14대 교역국에서 2019년에는 9대 교역국으로 부상함.
 - 2019년 기준 대러시아 교역은 한국 전체 교역의 약 2.1% 비중을 점유함. 수출 비중은 한국 전체 수출의 1.4%이나, 수입 비중은 2.9%를 기록함.
 -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증가에 따라 상품수지는 2009년 이후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에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44.3%, 수입에서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가 60%의 비중을 각각 점유함.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외에는 합성수지(4.1%), 건설중장비(3.3%), 비누·치약 및 화장품(2.7%), 철강판(2.7%) 등이 대러시아 10대 수출 품목에 포함됨.

- 2019년 기준 한국 기업의 대러시아 투자금액은 27억 6,600만 달러이며, 전체 진출 법인 수는 601개에 이룸.
 - 이러한 투자 규모는 한국의 전 세계 투자금액의 0.57%에 불과한 수준임.
 - 제조업은 186건의 신규 법인에 15.93억 달러의 투자를 기록하였으며, 도소매업은 131건의 3.65억 달러에 달하며, 농업은 63건의 2.22억 달러에 이룸.
-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는 2020년 2분기까지 누적금액으로 7,542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업종별로는 도소매에 대한 투자가 3,625만 달러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2,263만 달러로 많은 규모를 기록하였음.

한·러 에너지 협력

- 한·러 에너지 교역 동향
 - 한국의 전체 에너지 수입에서 차지하는 러시아산 에너지 비중의 증가로 러시아는 한국의 주요 에너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음.
 - 한국은 3대 에너지 품목의 수입 비중이 대러시아 전체 수입의 약 60%로 매우 높음. 2019년 기준 3대 에너지 품목의 대러시아 수입 비중은 원유가 31.8%, 석탄이 19.3%, 천연가스가 7.5%를 각각 기록함.
- 한국과 러시아는 상호 에너지 협력 필요성
 - 한국은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 지속으로 LNG, 원유, 석탄 등의 주요 에너지 수출국인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함. 또한, 에너지 수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동 산유국들의 수급 불안정에 따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운송에서 장점을 지닌 러시아와의 에너지 교역 확대를 고려할 수 있음.

- 러시아는 기존의 주요 수출 시장인 유럽의 전통에너지(석유, 천연가스) 수입 감소와 이에 따른 러시아산 에너지의 수입 정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해 세계 최대 에너지 시장으로 부상한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및 아·태 시장에 대한 수출 증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한·러 경제 협력 확대 방안

● 한·러 교역 및 투자 확대 방안

- 한국과 러시아는 각각 제조업 제품 위주의 수출과 원자재 위주의 수출로 상호 보완적인 교역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한국은 최근 화장품, 건설장비, 아연도금강판 등으로 수출 품목을 다각화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유망 제조업 품목을 발굴하여 수출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러 양국이 논의 중인 서비스·투자 FTA 및 한·EAEU FTA 체결을 통해 러시아 및 EAEU 국가들과의 교역을 확대할 수 있음.
- 에너지 수입노선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국과 동북아 지역으로의 에너지 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러시아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LNG 등의 교역을 확대할 수 있음.
- 한국 기업들은 전자, 자동차, 제과 등의 부문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 유망 제조업 부문의 투자와 함께 서비스 부문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기존의 조선,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과 함께 인프라·환경 협력, 보건 의료 협력, 농수산 분야 협력 등이 유망함. 특히, 러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혁신산업 분야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음.
- 산업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 양국의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혁신펀드 등을 운용하는 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러 에너지 개발 및 기타 협력

- 한국 기업의 대러시아 에너지 개발 투자 프로젝트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중단됨. 반면 에너지 장비 수출, 선박 수주 등에서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최근에도 쇠빙 LNG 운반선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둠.
- 중동에 대한 에너지 수입의존도 축소와 안정적 에너지 수입을 위해 대러시아 에너지 교역 확대와 최근 성과를 내고 있는 쇠빙 LNG 운반선 등 선박 수주 및 조선 부문에서 협력이 필요함.
- 또한 LNG 운송 인프라 및 에너지 관련 항만 인프라 구축 협력과 한·러 전력 연계 및 가스관 연결 사업 재개 검토가 필요함.
- 러시아 정부는 항만을 통한 에너지 자원, 곡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극동러시아 지역의 항만 인프라 개발을 계획하고 있음.
 - 한국 기업들은 항만 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하였으나, 향후 기존의 양국 합의에 의해 진행된 슬라비안카, 볼쇼이카멘 항만 개발 타당성 조사 등과 연계하여 이 항만 개발사업에 국내 기업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I. 머리말

한·러 수교 30년의 의의

- 한국은 1990년 9월 30일 소련과 수교하였으며, 이후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와 현재까지 30년 동안 정치·경제 관계를 맺고 있음.
 -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연방이 탄생하였으며, 이후 러시아는 국 제무대에서 공식적으로 소련을 계승하였음.¹⁾
- 소련과의 수교는 사회주의 종주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한·러 수교는 사회주의권의 종주국이었던 소련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소련(러시아)과의 협력은 정치적으로는 한반도 주변 4강과 모두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양국 간의 교역 및 투자 협력과 함께 유라시아 대륙과의 에너지 운송망, 물류망 등을 구축하는 협력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러시아는 다른 주변 강대국과 함께 한반도 6자회담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하였음.
 - 한·러 수교는 한국의 북방경제정책이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음. 북방정책은 3대 싼실크로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을 거쳐 현정부에서는 신북방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음.

한·러 수교 이후 양국 간의 정치·경제 관계 발전

- 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정치적으로는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 관계'

1) 러시아는 과거 소련의 외국과 체결한 조약상의 권리와 의무, 국제기구에서의 지위, 대외 자산과 부채 문제 등을 승계하였음.

(1994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포괄적 동반자관계'(2004)를 거쳐 2008년 부터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²⁾

- 경제적으로는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고, 에너지 및 건설 인프라, 조선, 운송물류, 관광, 의료 부문에서 양국 간의 협력이 증대되고 있음.
- 다만, 양국의 정치·경제 협력관계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고 있음.
 - 현재 북핵 문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등의 요인들이 양국 간의 협력에 걸림 돌로 작용하고 있음.

신북방정책과 러시아

- 한국의 북방정책은 1990년 한·소 수교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균형자론,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의 정책으로 이어져 왔음.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과거의 북방정책을 계승하되 새로운 차원의 협력으로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신북방정책을 제시하였음.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에서는 유라시아와의 협력 강화 등 대륙 전략으로서 신북방정책을 제시함. 정부는 남·북·러 3각 협력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러시아 및 EAEU(유라시아경제연합)와의 경제 협력 확대를 신북방정책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음.

지난 30년간의 경제 협력 평가 및 새로운 협력 방안 도출 필요

-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한·러 경제 협력을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됨.
 - 그동안의 경제 협력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여러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경제 협력에 어려움이 있는 러시아와의 새로운 협력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 협력 발전 가능 부문과 협력 방식 등을 새롭게 연구할 필요가 있음.

2) 양국 간 정치관계는 더디지만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전략적 협력은 동맹을 제외한다면 양자 관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라고 할 수 있음. 서동주·장세호, 『한·러 전략적 협력의 쟁점과 과제』, 국가안전전략연구원, 2019. pp. 15~17

II. 한·러 경제 협력의 새로운 방향의 필요성

1. 러시아 경제의 특징

현대 러시아 경제의 특징

● 에너지 의존형 경제의 특징 지속

- 러시아의 에너지 부문은 2018년 기준 GDP의 25%, 세수의 46.4%, 수출의 63.7%를 점유하였음. 이 가운데 석유 및 가스 부문의 비중은 2019년 기준 GDP의 11.2%, 세수의 39.3%에 달함. 또한 러시아의 전체 수출에서 원유 수출이 점유하는 비중은 지난 10년간 29~36%를 기록하였음.
- 국제유가 변동은 러시아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국제유가 하락으로 2015년 2.3%의 성장에 그쳤던 러시아 경제는 2016~18년 국제유가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6년 0.3%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한 데 이어 2017년과 2018년에도 각각 1.5% 및 2.3%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 이에 따라 아래 [그림 1], [그림 2]에서와 같이 국제유가 변동과 러시아 수출 변동, 경제성장률의 변동은 전반적으로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1 국제유가와 러시아 경제성장률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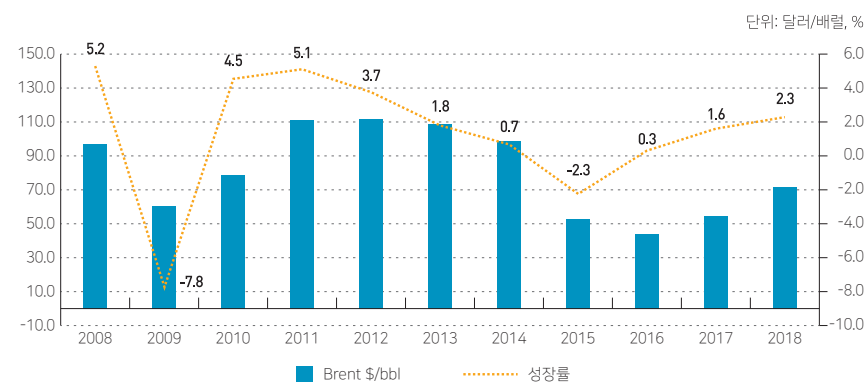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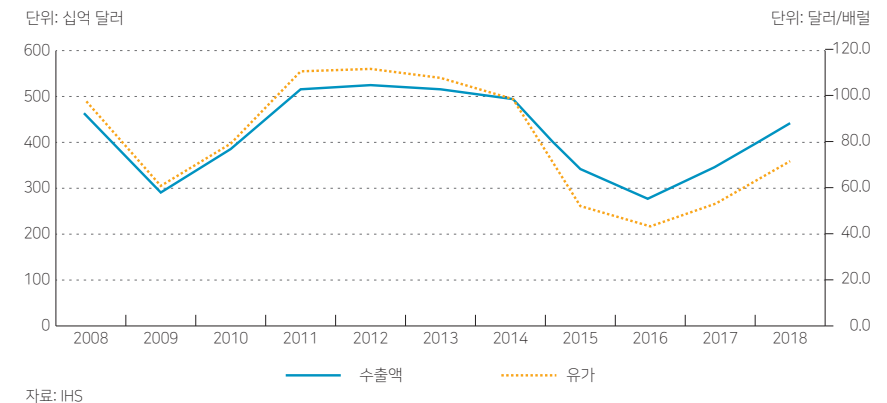


그림 2 국제유가와 러시아 수출 규모의 변동



- 반면 러시아의 제조업 수출 비중은 낮은 편으로 2019년에는 전체 수출에서 금속, 기계 및 설비가 12.5%, 화학제품이 6.4% 등의 비중을 점유하였으며, 이 품목들의 비중은 2010년보다 하락하였음.³⁾

● 국가경제에서 정부 부문(국영기업)의 높은 비중 지속

- 주요 산업 부문인 석유, 가스, 철강, 자동차, 금융 등은 거대 국영기업의 높은 시장지배력에 따라 정부의 영향력이 절대적임.
- 러시아 반독점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현재 러시아 경제에서 정부 부문의 비중은 60~70%에 달했으며, 이는 1998년 러시아 금융위기 시기의 25%, 2013년의 50%보다 상승한 것임.⁴⁾

● 대외교역 및 투자협력에서는 유럽과 에너지 위주의 협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

- 에너지 수출이 많은 유럽과의 교역 규모가 가장 크며, 최근에는 송유관, 가스관 연결을 통한 중국으로의 에너지 수출 증대로 중국과의 교역액이 증가하고 있음.

3) 러시아통계청

4) <https://www.kommersant.ru> 2019.04.30

대러시아 제재와 러시아 경제

-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로 러시아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음.
 - 2014년 국제유가 하락 시기에 시작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는 6년 이상 지속되며 러시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수입대체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터키 등 비서방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2. 러시아 정부의 최근 산업정책

가. 정부의 산업 전략과 주요 정책

에너지 위주의 경제구조 극복과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 필요성

- 산업에서는 에너지 의존형 경제의 극복이 필요
 - 최근 전통에너지 소비 감소와 신재생에너지 소비 증대 정책을 추진하는 유럽의 상황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6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서방의 대러 제재 지속에 대응하여 러시아의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 정부는 1998년 모라토리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비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추진하였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음. 그러나 2014년 서방의 대러 제재와 상대국에 대한 상호 제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 발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음.

푸틴 정부의 국가 산업 전략의 내용

- 푸틴 대통령은 2018년 5월 취임 이후 “2024년까지 러시아연방 발전을 위한 국가목표 및 전략과제”를 발표하고 새로운 산업발전전략을 제시하였음.
- 푸틴 대통령은 이 전략에서 9개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3개 사업을 발표하였음. 9개 국정과제는 기술 발전, 기술혁신 기업 발전, 디지털

털 기술 도입, 제조업 및 농공단지의 첨단기술 발전과 고부가가치 생산부문 수출 등이며, 13개 사업에는 디지털 경제, 건설 산업 현대화, 대중교통의 정보화 등이 포함됨.⁵⁾

- 푸틴 집권 3기(2012~18년)부터 러시아 정부는 수입대체산업정책, ICT 발전, 극동 개발 등을 추진하였으며, 산업부문별 중장기 발전전략을 추진함.
 - ICT 발전의 필요성: 러시아 정부는 생산에 필요한 기계와 생활필수품 생산 등의 제조업 육성, 수입대체산업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ICT 등의 부문을 발전시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고자 함.
 - 극동러시아 개발 필요성: 극동러시아 지역 개발은 세계 최대의 인구를 보유하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최대 LNG 소비국인 일본, 한국으로의 에너지 자원 수출,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조선업, 석유화학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에 따라 푸틴 집권 4기에는 자동차, 조선업, 석유화학 등의 부문에서 발전전략이 수립되어 발표되었음.
 - 또한 러시아 정부는 산업정책 추진을 통해 제조업 부문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표와 같은 수준의 제조업 수출과 생산, 소비 증대를 목표로 함.

표 1 러시아의 산업발전 전략 및 정책

시기	주요 정책	내용
2013년 이후	지역개발: 극동개발정책	- 항만, 철도, 도로 등 운송 인프라 개발, 석유화학 시설 등 에너지 인프라 개발 - 극동러시아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 추진 - 경제특구 형태의 선도개발지구, 자유항 육성을 통한 기업 투자 유치
2014년 이후	제조업 육성 정책: 수입대체산업화 정책	- 2014년 서방의 제재 이후 주요 전략산업에 대해 수입대체화 정책 추진 - 주요 부문으로는 제약, 무선전자, 항공, 의료, 조선 등이 포함 - 보조금, 정부 투자 등을 통해 지원
2016년 이후	ICT 발전 정책: 국가기술 이니셔티브 2035 및 2017~2030 정보사회 발전전략	- 4차 산업혁명 연관 부문 발전 - 인공지능, 무인 항공기, 개인형 의료 시스템 등 부문에서 해외 첨단기술 도입 및 혁신산업 육성 지원

자료: 각종 자료 참고 작성.

5) 김학기, 「제4기 푸틴 러시아 정부의 전략과제와 한·러 협력」, 『KIET 산업경제』, 2018.7. 59쪽.

표 2 푸틴 4기 러시아의 부문별 산업발전 정책

주요 산업별 장기정책	수립 시기
자동차 산업 2025 전략	2018년 5월
석유화학 콤플렉스 발전 2025	2019년 3월
곡물 콤플렉스 발전전략 2035	2019년 8월
식료 및 가공 부문 기계제작 2030	2019년 9월
조선업 발전전략 2035	2019년 10월
농업 및 임업 콤플렉스 발전전략 2030	2020년 4월
에너지 산업 발전전략 2035	2020년 6월
전력산업 2035	2020년 6월

자료: <http://government.ru/rugovclassifier/625/events/>

표 3 비에너지 부문의 수출 성장률 목표

단위: 십억 달러, %

부문	2017	2024	연평균 성장률
비에너지 부문 수출	134.2	250.0	9.3
제조업 부문 수출	113.5	205.0	8.8
농업 수출	20.7	45.0	11.7

자료: Мантуров, "О промышлен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на перспективу" 2018-2030. 2018.

표 4 제조업 생산 증가율 목표

단위: 십억 달러, %

부문	2017	2024	연평균 성장률
수출	113.5	205.0	8.8
국내소비	509.3	626.6	3.0
생산	623.0	831.6	4.3

자료: Мантуров, "О промышлен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на перспективу" 2018-2030.. 2018.

나. 수입대체 및 수출 지원 정책 추진

러시아 정부는 대러 제재 이후 각 부문의 수입대체 전략 적극 추진

- 2014년 이후 추진된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2014년 9월에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수입대체산업육성 정책을 통해 모두 20개 산업에서 2,0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이 가운데 제약, 무선전자, 항공, 의료, 조선 등을 핵심산업으로 선정한 바 있음. 이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입대체산업 위원회를 구성(2015. 8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 산하에는 민간산업 위원회, 군수산업 위원회 등을 두고 있음.
 - 현재 민간 영역의 23개 분야에서 수입대체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전체 프로젝트 수는 1,700여 개에 달하는데, 2019년 12월에 개최된 평가회의에서는 이 가운데 2/3가량은 이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논의함.
 - 2015~18년 동안 러시아 정부는 1.6조 루블(약 250억 달러)을 투자하였는데, 이 가운데 식품가공업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기계제작업, 목재업, 화학산업 등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음.⁶⁾
- 수입대체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
 - 2014년 산업부가 설립한 산업발전펀드(Industrial Development Fund) 등 기관을 통해 산업현대화와 수입대체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음.
 - 기업들에 연 1%, 3%, 5%의 이자율로 최대 7년 동안 500만~7억 5,000만 루블((7만 7,000~1,160만 달러)까지 지원하며 실물경제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있음.

6) <https://neftegaz.ru> Итоги за 5 лет. Д. Медведев проверил, как идет 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е в ТЭК и не только 2019.12.11.

- 7개의 주요 부문(개발 프로젝트, 기계 제작 프로젝트, 부품 개발, 리스 프로젝트, 제약, 노동생산성, 산업 디지털화)와 중점 육성 제조업 부문(바이오 기술 관련 식료산업, 섬유, 의류, 가죽, 목재, 제지, 화학, 제약 및 의료기기, 고무 및 플라스틱, 기타 비금속 광물, 컴퓨터 및 전자기기, 전자부품, 자동차 동력기, 가구)을 지원하고 있음.
- 에너지 부문: 러시아 정부는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개발 및 첨단제품의 개발과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평가하고 수입대체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러시아 에너지부 노박 장관과 산업통상부 만투로프 장관은 2015년 3월 개최된 제3회 ‘국가 석유 및 가스 포럼’에서 향후 석유 및 가스 부문의 수입 비중을 기존의 60%에서 2020년에는 43%까지 줄이는 내용의 수입대체 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⁷⁾
 - 이에 따라 석유화학 콤플렉스 발전전략은 2019년 3월, 에너지 산업 발전전략은 2020년 6월, 전략산업 발전전략은 2020년 6월에 수립됨.
- 이 밖에도 자동차 산업, 조선업, 기계 제작, 의료 등의 분야에서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이 수립된 바 있음.

국가 프로젝트 “국제협력과 수출” 등 수출 진흥정책 적극 추진

- 수출 확대를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 “국제협력과 수출” 프로젝트를 2018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음.
 - 제1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이 프로젝트의 전반을 관리하며, 산업통상부 장관과 정부 내 산업 관련 부서의 장관들이 참여함(제조업 수출-산업통상부, 농업 수출-농업부, 국제상업물류-교통부, 서비스 수출-경제발전부, 국제협력 및 수출 발전 체계 구축-‘러시아 수출센터(Российский экспортный центр)’ 사장).

7) <https://energyforum.ru>

- 비원료 및 비에너지 부문의 수출 규모를 2018년의 약 1,500억 달러에서 2024년에는 2,500억 달러로 증대시킬 계획임. 이 가운데 2024년까지 기계제작 부문 수출 600억 달러, 농업 부문 수출 450억 달러를 계획함(2018년 기계제작 부문 수출은 291억 달러, 농업 수출은 258억 달러를 기록함). 또한 제조업 및 농업 부문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을 2018년 16.1%에서 2024년에는 20%로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표 5 국가 프로젝트 “국제협력과 수출”의 부문별 수출 목표(2017년 12월 31일 기준 대비)

단위: 십억 달러, %

부문	2017	2020	2024
비에너지 부문 수출	135.1	167.0	250.0
기계제작	33.0	39.0	60.0
석유화학	17.4	24.1	37.0
철강	42.1	52.5	58.0
목재	9.5	13.4	17.0
제약, 화장품	1.4	2.1	4.0
경공업	1.2	1.7	2.3
농업	21.6	25.0	45.0
제조업, 농업, 서비스 부문의 수출 비중 (단위: GDP 대비 %)	16.1	18.5	20.0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들과의 교역 규모	52.4	62.4	78.8

자료: 러시아 산업통상부

- “국제협력과 수출” 프로젝트는 5개의 하위 프로젝트로 구성됨.
 - 5개의 하위 프로젝트는 제조업 수출, 농업 수출, 국제 상업물류, 서비스 수출, 국제 협력 및 수출 발전 체계화 등의 항목으로 구성됨.
 - 또한 “국제협력과 수출” 프로젝트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무선통신기기, 금속제품, 다양한 종류의 저울 및 측량 제품 등 121개의 육성 부문을 선정하였음.

표 6 국가 프로젝트 “국제협력과 수출”의 하위 프로젝트와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조업 수출	- 2024년 제조업 부문의 수출을 2,050억 달러로 증대 - 러시아 제품의 경쟁력 확대 추진
농업 수출	- 2024년 450억 달러 수출 - 수출 인프라 구축 - 무역 장벽 제거 노력 - 어업, 식료가공업, 곡물 등 주요 수출품의 경쟁력 향상 추진
국제 무역 물류	- 2024년 교통 서비스 수출 250억 달러로 증대 - 국경 지역에 36개의 통관 지역 설치(도로 16개, 항만 15개, 철도 3개, 항공 2개 등) - 국제 운송망을 통한 정기 컨테이너 운송망 개설 추진
서비스 수출	- 2024년 1,000억 달러 목표(2018년 650억 달러)
국제 협력 및 수출 발전을 위한 체계적 방안	- 수출 관련 행정 장벽 제거 - 중고품의 수출 지원 - 수출기업 지원 - 러시아 85개 지방과 외국 사무소에 통합 수출 지원 체계 구축

자료: 러시아 산업통상부

다. 혁신산업 발전정책 추진

혁신산업 발전정책 적극 추진

- 정부의 주요 전략에 혁신산업 발전정책이 포함됨.
 - 2009년 메드베데프 대통령 시기부터 시작된 경제현대화 정책을 통해 혁신 5대 산업[에너지 효율화, 원자력 기술, 우주기술, 의료기술, 전략정보기술(슈퍼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 분야의 정부 정책이 추진됨. 이후 러시아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ICT, 디지털 등의 부문에서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그동안 추진된 관련 정책으로는 ‘2017년 러시아연방 디지털 경제화 프로그램’, ‘2020년까지 러시아 연방 혁신발전 전략’ 등이 있으며, 현재는 ‘2018~2025 과학기술발전 국가 프로그램’과 ‘국가기술 이니셔티브 2035’ 등이 주요 혁신산업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음.

표 7 혁신산업 관련 발전 정책

추진시기	주요 전략 및 전략	내용
2011년	2020년까지 러시아 연방 혁신발전 전략	- 연구 및 기술 혁신 분야의 투자 비중 확대 - 기술 혁신 기관 확대 - 실물 부문과의 연계 확대 - 정보화 사회 지표 개선
2016년	국가기술 이니셔티브 2035	- 신기술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역량을 갖추고자 함 - 9개 분야와 10대 핵심 기술 제시: 10대 핵심 기술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이 포함
2017년	2017년 러시아연방 디지털경제화 프로그램	- 지식정보화, ICT 인프라 개발 및 국제 경쟁력 강화, 디지털 경제를 통한 경제발전
2017년	과학기술발전 국가 프로그램 2018~2025	- 기초과학 연구, 인력 개발, 인프라 구축 등 - 국제 협력 - 금융 지원

자료: 박지원, 『러시아 혁신성장정책의 평가와 협력 시사점』, KOTRA. 2019 등 참고 작성.

혁신산업 정책 지원기관 설립

- 러시아 벤처기업(러시아 벤처산업의 모태펀드), 혁신촉진펀드(고부가가치 기술 부문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혁신 및 고부가가치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수출 지원, 대외협력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표 8 러시아 산업정책 부문별 지원 기관

구분	기관
혁신 부문 무상 금융 지원	스콜코보 혁신센터, 로스나노, 혁신촉진펀드
대출	로스나노, 대외경제은행, 중소기업은행, 지역도시 개발펀드
직접투자	로스나노, 대외경제은행, 러시아직접투자펀드
벤처기업 금융 지원	러시아 벤처기업(RVC), 로스나노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공사, 중소기업은행
수출 지원	러시아 엑스포 센터, 러시아수출신용 및 투자보험
산업발전 단지	러시아 산업단지 연합, 특별경제구역, 클러스터 및 기술단지 연합

자료: 러시아 산업통상부 등 참고 작성

라. 한·러 경제 협력의 새로운 방향 설정의 필요성

기존의 한·러 경제 협력의 한계와 새로운 협력 방향의 필요

- 한·러 간의 협력은 양국의 가스관 건설을 통해 한국에 필요한 안정적인 에너지 도입이 가능해지고, 철도(남북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을 통해 한반도에서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 유럽으로 연결되는 운송망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남북 관계나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 상황 등이 이러한 대규모 에너지, 운송 프로젝트의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최근 러시아를 둘러싼 경제적 상황이나 러시아 정부의 대응정책 등을 통해 향후 한·러 간의 협력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 먼저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우리 기업의 에너지 등 대규모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또한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수입대체산업 정책은 러시아 국내 산업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러시아 국내 제조업 활성화 정책, ICT 산업발전 정책 등에 대응하여 관련 분야의 협력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러시아 정부는 ICT 등 혁신산업 발전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ICT, 제조업 부문에서 협력을 고려할 수 있음.

신북방정책 추진 활성화 방안

- 신북방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7년에 시작된 신북방정책으로 정부 내 관련 부서가 설립되고 관련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북핵 문제 등 대외적인 정치·경제환경의 영향으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향후 주요 프로젝트 추진을 지속하되,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항만 인프라 개발, LNG 터미널 건설 부문에서의 협력, 극동러시아 경제특구로의 한국 기업의 진출 등 협력 유망 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극동러시아 지역을 통한 한·러, 남·북·러 협력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반도와 인접한 극동러시아 지역에서의 교통, 물류, 인프라 건설 부문에서의 협력, 제조업 투자 등 다양한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남·북·러 협력 사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Ⅲ. 한·러 교역 협력

1.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 현황

2019년 러시아는 한국의 9대 교역국으로 부상

- 러시아는 2019년 기준 한국의 9번째 교역상대국으로 한국 교역의 약 2.1%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
 - 러시아는 교역 첫해인 1999년에는 한국의 23대 교역국이였으며, 교역량이 점차 증가하여 2009년 한국의 14대 교역국, 2019년에는 9대 교역국으로 부상함.
 - 한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로 한국의 14번째 수출상대국이며, 수입 비중은 2.9%로 9번째 순위에 해당함.

표 9 한국의 10대 교역국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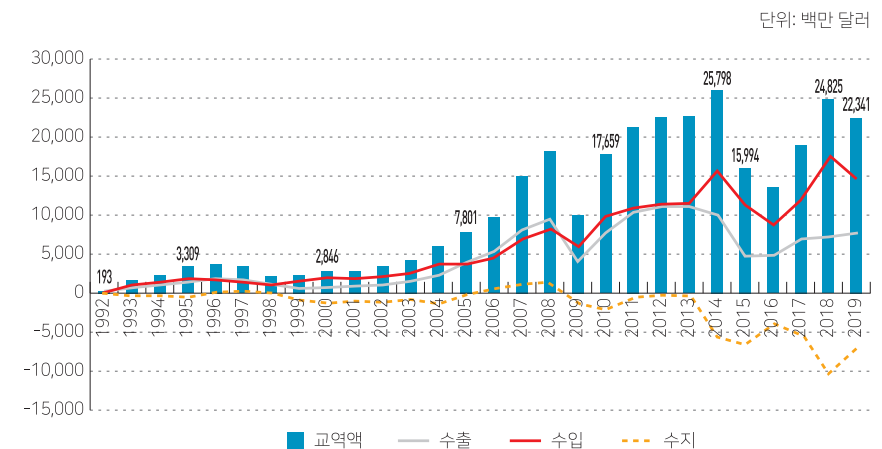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순위	국가	교역 규모	수출	수입	상품수지	교역 비중 (단위: %)
1	중국(홍콩)	2,434 (337)	1,362 (319)	1,072 (18)	290 (301)	23.3 (3.2)
2	미국	1,352	733	619	114	12.9
3	일본	760	284	476	-192	7.3
4	베트남	693	482	211	271	6.6
5	대만	314	157	157	0	3.0
6	독일	286	87	199	-112	2.7
7	호주	285	79	206	-127	2.7
8	사우디아라비아	255	37	218	-181	2.4
9	러시아	224	78	146	-68	2.1
10	인도	207	151	56	95	2.0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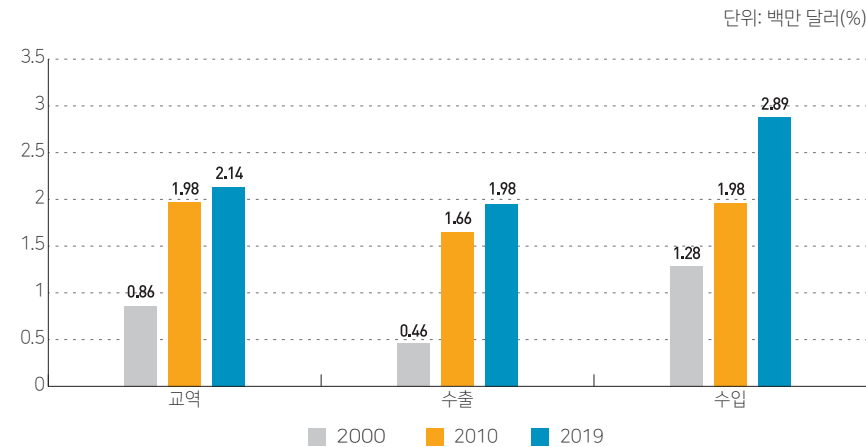
- 한·러 간 교역 규모는 양국 교역 첫해인 1992년 1억 93만 달러에서 이듬해인 1993년 15억 7,600만 달러로 증가한 이후, 2019년에는 224억 달러로 늘어남.
 - 양국의 교역 규모는 2007년 100억 달러, 2011년 2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그 후 4년 연속으로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해 2014년에는 약 260억 달러로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음. 국제유가가 하락한 2015~17년에는 100억 달러대로 감소하였으나 2018~19년 다시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였음.

그림 3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1992~2019년)



- 러시아와의 교역규모 증가로 한국의 교역에서 러시아의 비중은 상승하는 추세임.
 - 한국의 교역에서 러시아의 비중은 1992년 0.12%, 2000년 0.86%에서 2010년에는 1.98%, 2019년에는 2.1%로 상승하였음.
 - 2019년 기준 대러시아 수출 비중은 전체의 1.98%, 대러 수입 비중은 전체의 2.89%를 기록하였음. 이러한 수출입의 비중은 아래의 [그림 4]에서와 같이 상승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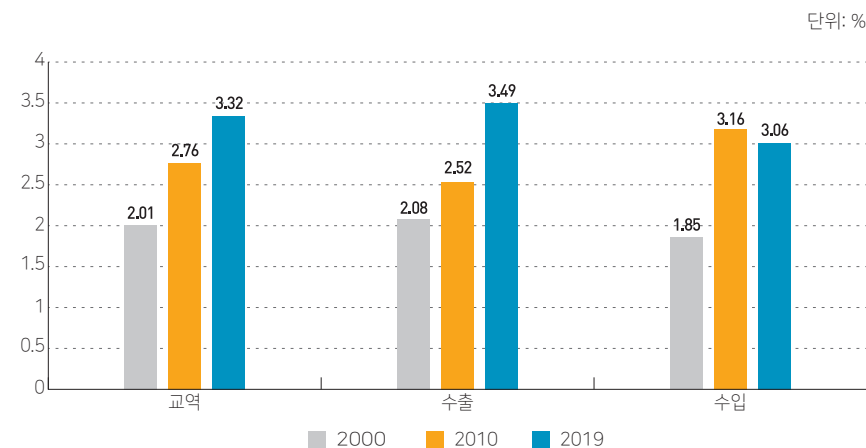
그림 4 한국의 교역에서 러시아의 비중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한국은 2019년 기준 러시아의 7번째 교역국임. 러시아의 교역에서 한국의 비중은 3.32%를 기록하였는데, 이 비중은 2000년 2.01%, 2010년 2.76%에서 점차 상승하는 추세임.
 - [그림 5]에서와 같이 2019년 기준으로 러시아의 전체 수출에서 대한국 수출이 대 한국 수입보다 다소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음. 2014년 이후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감소로 러시아의 전체 수입에서 대한국 수입이 점유하는 비중은 감소하였음.

그림 5 러시아의 교역에서 한국의 비중 추이



자료: 러시아통계청 및 한국무역협회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증대에 따라 최근 한국의 상품수지 적자 지속

- 2009년 이후 러시아산 에너지의 수입 증가로 한국은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특히, 2018년에는 약 102억 달러의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하였음.
 - 2009년부터 한국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이 시작되면서 전체 대러시아 수입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수입액은 2009년 57.8억 달러에서 2010년 98.9억 달러로 증가), 국제유가 하락 시기인 2016년을 제외하면 한국의 대러시아 수입실적은 2011년부터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
 - 반면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규모는 2015년 이후 러시아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음. 수출액은 2015년에 전년 대비 절반 이상(53.7%) 급격히 줄어든 이후, 지난해까지 2014년 규모에 이르지 못함.

2. 한·러 교역의 주요 수출입품목

가.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의 특징

대러시아 수출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전체 수출의 40% 이상 점유

- 대러시아 수출에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1, 2위 수출 품목으로 이들 품목의 금액과 수출 비중이 점차 상승하는 추세임.
 - 대러시아 수출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비중은 2009년 28%에서 2019년 44.3%로 크게 상승함. 이 가운데 자동차의 비중은 2009년 20.3%에서 2019년에는 29.3%로, 자동차 부품의 비중은 2009년 7.7%에서 2019년 15.0%로 상승하였음.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외에는 합성수지(4.1%), 건설중장비(3.3%), 비누치약 및 화장품(2.7%), 철강판(2.7%) 등이 대러시아 10대 수출품목에 포함되어 있음.
- 기타 수출품목에서는 비누·치약 및 화장품, 건설중장비, 철강판, 타이어 등의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은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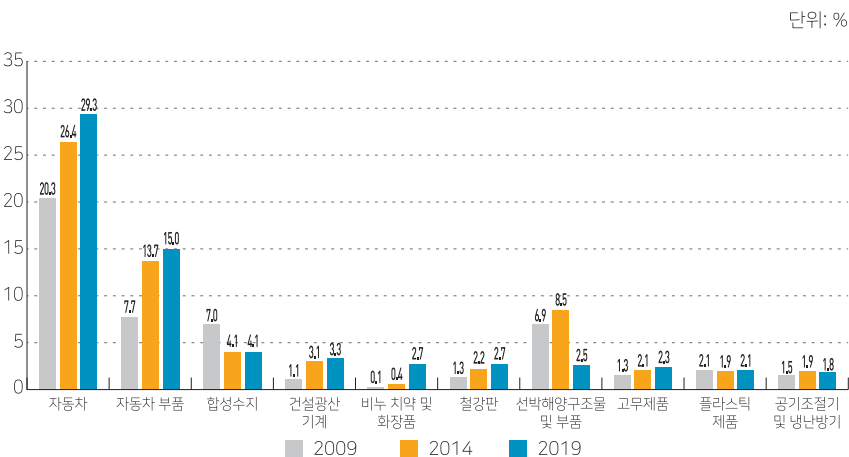
- 특히, 비누·치약 및 화장품은 대러시아 수출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2009년 0.1%, 2014년 0.4%에서 2019년 2.7%로 급격히 상승하고 금액도 크게 증가함.
- 반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냉장고 등의 수출 비중은 크게 하락하여 20대 주요 수출 품목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무선통신기기는 2009년 전체 대러시아 수출의 8.7%에서 2014년 1.9%, 2019년 0.6%로 비중이 급격히 하락하였음.

표 10 한국의 대러시아 10대 수출품목의 금액 및 비중(MTI 3단위 기준)

순위	품목	2009		2014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자동차	852	20.3	2,670	26.4	2,274	29.3
2	자동차 부품	324	7.7	1,388	13.7	1,168	15
3	합성수지	292	7	417	4.1	321	4.1
4	건설중장비	45	1.1	310	3.1	260	3.3
5	비누·치약 및 화장품	5	0.1	39	0.4	213	2.7
6	철강판	53	1.3	227	2.2	211	2.7
7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288	6.9	861	8.5	193	2.5
8	타이어	55	1.3	208	2.1	176	2.3
9	플라스틱 제품	90	2.1	191	1.9	164	2.1
10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62	1.5	199	2	137	1.8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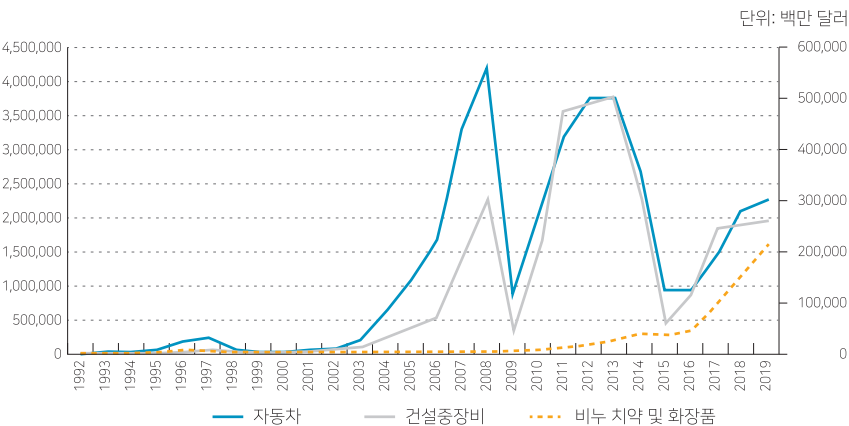
그림 6 한국의 대러시아 10대 수출품목의 비중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 대러시아 수출에서 자동차의 높은 비중은 러시아 소비자들의 한국 자동차 선호 추세에 따른 것이며, 비누치약 및 화장품은 한류의 확산에 따른 것으로 평가됨.
- [그림 7]와 같이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자동차와 건설광산기계의 수출 규모는 러시아 경제의 동향에서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시기와 2014~15년 유가 하락으로 인한 러시아 경기 둔화기에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비누·치약 및 화장품은 이러한 경기 동향에서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음.

그림 7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품의 수출 동향(왼쪽축:자동차,오른쪽축:건설중장비,비누·치약및화장품)



자료: 한국무역협회

- 이 밖에 타이어,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가구, 원동기 및 펌프, 석유제품 등 이 한국의 대러시아 20대 수출품목에 포함되어 있음.

표 11 한국의 대러시아 20대 수출품목의 변동 및 비중(MTI 3단위 기준)

순위	2009		2014		2019	
1	자동차	20.3%	자동차	26.4%	자동차	29.3%
2	무선통신기기	8.7%	자동차부품	13.7%	자동차부품	15.0%
3	자동차부품	7.7%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8.5%	합성수지	4.1%
4	합성수지	7.0%	합성수지	4.1%	건설광산기계	3.3%
5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6.9%	영상기기	3.5%	비누·치약 및 화장품	2.7%
6	영상기기	5.1%	건설광산기계	3.1%	철강판	2.7%
7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3.7%	철강판	2.2%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2.5%
8	기호식품	2.8%	고무제품	2.1%	고무제품	2.3%
9	가정용회전(rotary electric)기기	2.2%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2.0%	플라스틱 제품	2.1%
10	플라스틱 제품	2.1%	무선통신기기	1.9%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1.8%
11	석유제품	1.8%	플라스틱 제품	1.9%	전자응용기기	1.7%
12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1.5%	전자응용기기	1.2%	산업용 전기기기	1.5%
13	컴퓨터	1.4%	원동기 및 펌프	1.2%	가구	1.4%
14	고무제품	1.3%	운반하역기계	1.1%	원동기 및 펌프	1.4%
15	철강판	1.3%	석유제품	1.1%	석유제품	1.2%
16	전자응용기기	1.3%	금형	1.1%	정밀화학원료	1.2%
17	냉장고	1.2%	기호식품	1.0%	섬유 및 화학기계	1.0%
18	정밀화학원료	1.2%	냉장고	1.0%	종이제품	1.0%
19	종이제품	1.1%	우주선 및 부품	1.0%	조명기기	1.0%
20	건설광산기계	1.1%	금속공작기계	0.9%	반도체	1.0%

자료: 한국무역협회 (* 음영 표시: 2014년 대비 2019년에 추가한 20대 수출 품목)

[Box 1] 러시아의 자동차 시장 동향

- 2019년 기준 한국 자동차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기아자동차 12.8%, 현대자동차 10.2%로 러시아의 라다(LADA) 자동차를 뒤이어 2, 3위를 기록함. 이는 2009년 한국 자동차의 러시아 시장점유율인 10.7%에서 약 2배가량 상승한 비중임.
- 2020년 1~7월에도 한국의 기아·현대 자동차의 신차 판매 비중은 25.4%로 러시아산 자동차의 판매비중인 22%를 상회하며 국가별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였음.
- 또한 2020년 상반기에 가장 많이 판매된 외국 자동차 브랜드에서도 기아의 리오와 현대의 크레타 모델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으며, 현대 쏘라리스가 4 위, 기아 스포티지가 8위를 기록하였음.⁸⁾

표 12 러시아의 브랜드별 신차 판매 비중(2009년, 2019년)

단위: (%)

점유율 순위	2009		2019	
	기업	비중	기업	비중
1	라다	23.8	라다	20.6
2	쉐보레	7.1	기아	12.8
3	포드	5.6	현대	10.2
4	현대	5.1	르노	8.2
5	르노	4.9	폭스바겐	5.9
6	기아	4.8	토요타	5.9
7	토요타	4.7	스코다	5.0
8	니산	4.4	니산	3.7
9	가즈	4.0	가즈	3.6
10	UZ 대우	3.5	벤츠	2.4

자료: <https://www.autostat.ru/infographics/42526/>

8) <https://www.autonews.ru> 2020년 8월 26일

-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높은 점유율은 2010년에 준공된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자동차 공장의 현지 생산에 따른 지원 정책(자동차 대출 프로그램을 통한 혜택 등)과 유럽·일본산 자동차와 비교해 소비자들의 기호를 충족하는 가격, 품질 등의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됨.

– 현대자동차는 2010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연 15만 대 생산 규모의 자동차 공장(현재 연 20만 대 생산 능력⁹⁾)을 건설하여 소형 SUV 크레타, 쏘라리스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연 10만 대 생산 규모의 GM 자동차 공장을 인수하였음.¹⁰⁾

- 산업별 비교우위지수(CA)¹¹⁾를 평가한 결과, 대러시아 수출 10대 품목에 포함되는 상품 중에서 자동차, 화장품, 아연도금강판, 가구(의자)의 러시아 시장에서의 비교우위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러시아 시장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춘 한국 제품은 자동차였으며, 화장품, 건설장비, 가구(의자) 등의 제품도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고, 앞으로 이들 품목은 러시아 수출이 유망한 것으로 전망됨.

9) 현대자동차 러시아 공장에는 2,245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약 2백만 m²의 규모의 공장에서 크레타(소형 SUV)와 쏘라리스를 생산하고 있음. <https://www.hyundai.com>

10) 2008년 건설된 GM 공장은 러시아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2015년 가동을 중단하였음.

11) 산업별 비교우위지수(CA)는 (RXi/RX)/(REi/RE)로 산출됨. 여기서 RXi는 특정국의 상대국에 대한 i품목의 수출액, RX는 특정국의 상대국에 대한 총수출액, REi는 상대국의 i품목 수입액, RE는 상대국의 총수입액임. CA 지수가 높을수록 해당 품목이 상대국에서 비교우위에 있음을 의미하며, 1 이상이면 해당 품목의 수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표 13 한국의 대러시아 10대 수출품목의 CA 지수(HS 4단위 기준)

순위	HS 단위	품목	CA 지수		
			2010	2015	2019
1	8703	자동차	4.86	5.39	8.91
2	8708	자동차 부품	4.00	5.73	3.94
3	3304	화장품	0.20	1.24	4.60
4	8429	불도저 등 건설기계	3.17	1.33	2.88
5	4011	타이어	1.80	2.29	2.25
6	7210	아연도금강판	1.60	4.20	4.50
7	8901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ferry-boat)·화물선·부선(barge) 등	-	-	3.20
8	3901	에틸렌 중합체	2.75	4.20	3.00
9	9401	의자(침대겸용 포함)	0.50	3.25	3.50
10	2710	석유제품	1.67	3.17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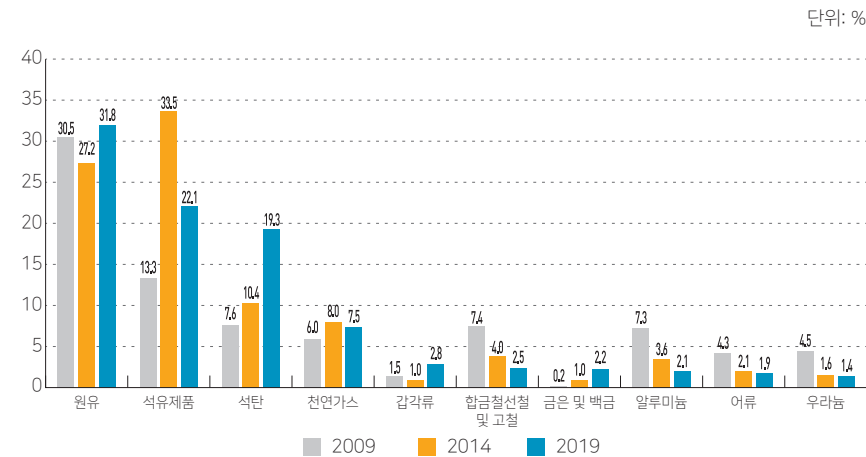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활용 저자 작성

나. 한국의 대러시아 수입의 특징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입품목

- 한국의 대러시아 수입품은 원자재가 대부분으로, 에너지와 광물 제품이 상위 10대 주요 품목 중 8개를 점유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원유, 석유제품, 석탄, 천연가스 등 4대 주요 에너지 품목의 수입 비중이 전체 수입의 약 80%에 달함. 이들 4대 품목의 비중은 2009년 57.4%에서 2019년 80.7%로 증가하여 대러시아 수입 품목이 에너지 부문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줌.
- 이 밖에도 국내 소비가 많은 대게 등의 갑각류와 명태 등 어류가 10대 수입품에 포함되어 있음.

그림 8 한국의 대러시아 품목별 수입 비중 추이



3. 러시아 대외교역의 특징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교역국으로 전체 교역의 16.5% 점유

-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러시아 수출의 13.4%, 수입의 22.2%를 점유하고 있음.
 - 러시아의 수출에서는 에너지 수입 규모가 큰 중국, 독일, 네덜란드 등의 국가들이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수입에서는 기계, 설비 및 운송수단의 수출 규모가 큰 중국, 독일이 높은 비중을 점유함.
- 세계 지역별 교역 비중은 EU 41.7%, 아시아·태평양 지역 32%, CIS 지역 12.1%를 기록하여(2019년 기준) 여전히 EU가 러시아의 최대 교역 지역임.

그림 9 러시아의 국가별 교역 비중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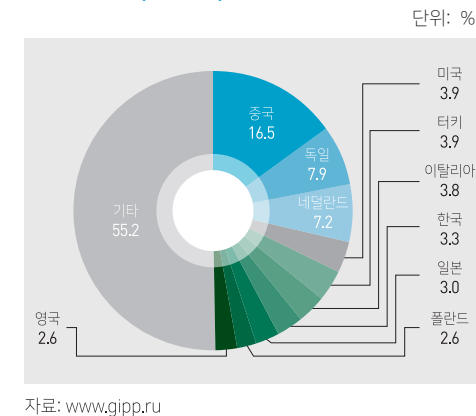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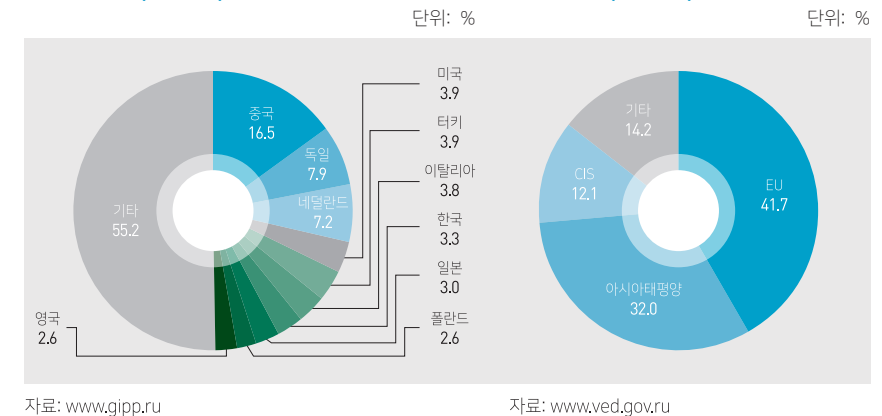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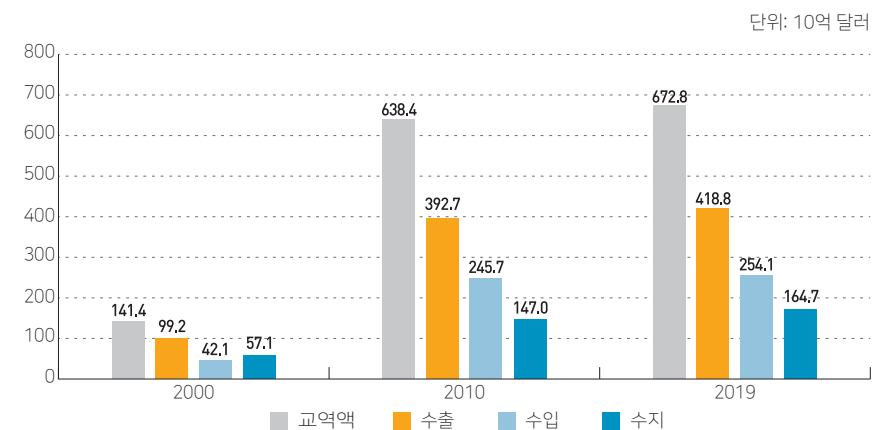
그림 10 러시아의 지역별 교역 비중 (2019년)



에너지 자원의 수출에 따른 지속적인 상품수지 흑자 기록

- 러시아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 자원의 수출로 지속적으로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러시아의 대외교역액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3.5배 증가하였으나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5.38% 증가에 그쳤음. 이는 2010년대 중반 이후의 세계 경기 침체,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러시아 경제성장률도 2014년 이후에는 둔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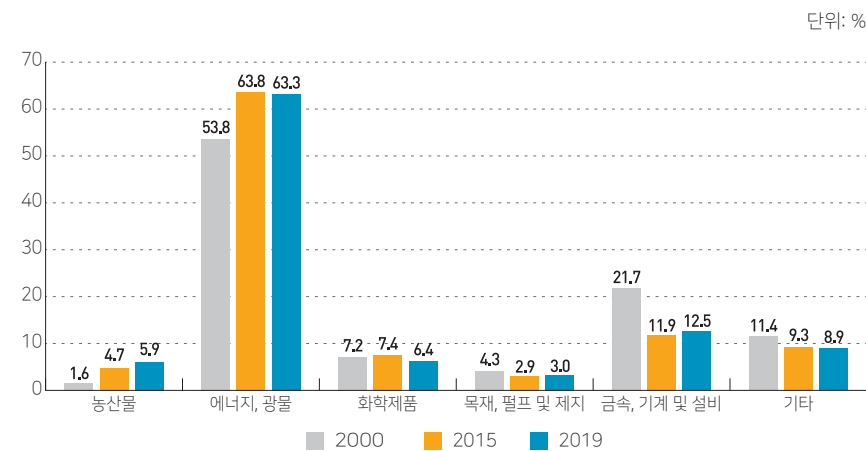
그림 11 러시아의 교역(2000-2010-2019년)



수출품에서는 에너지, 광물 부문이 절대적인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금속, 기계 및 설비가 높은 비중

- 러시아의 최대 수출품은 에너지 및 광물 자원으로 전체 수출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금속, 기계 및 운송수단, 화학제품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9년 기준으로 에너지 및 광물의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63.3%를 기록하였으며, 금속, 기계 및 설비가 12.5%, 화학제품이 6.4%, 농산물이 5.9%의 비중을 기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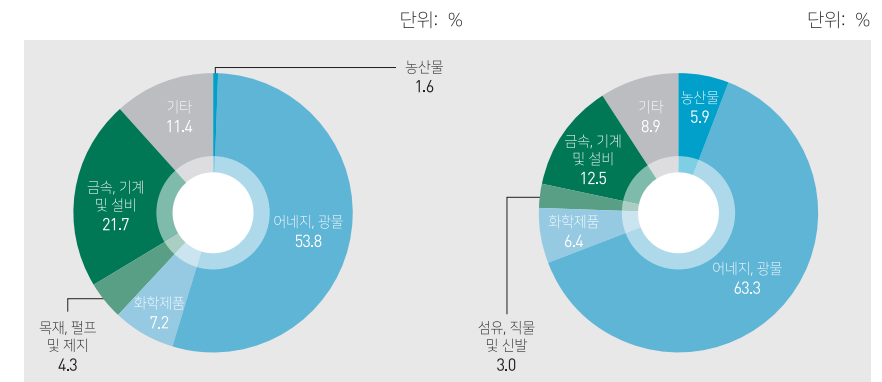
그림 12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2000·2010·2019년)



자료: 러시아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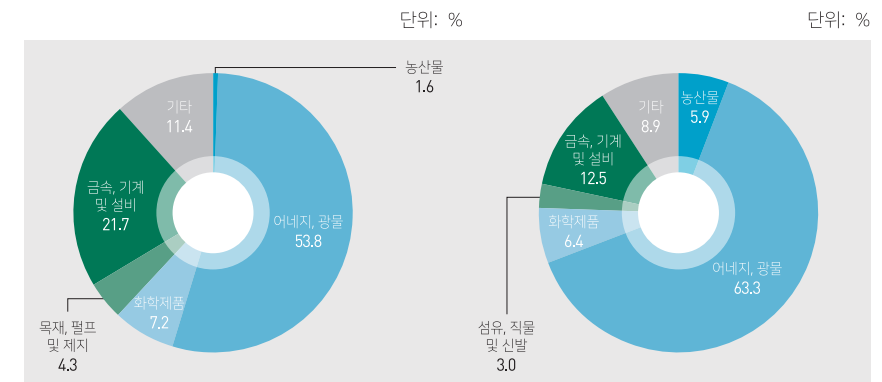
- 지난 9년 동안 러시아의 수출에서 에너지 및 광물 품목의 높은 비중은 계속 유지되었고, 농산물의 비중은 증가하였으며, 금속, 기계 및 설비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3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 (2010년)



자료: 러시아통계청

그림 14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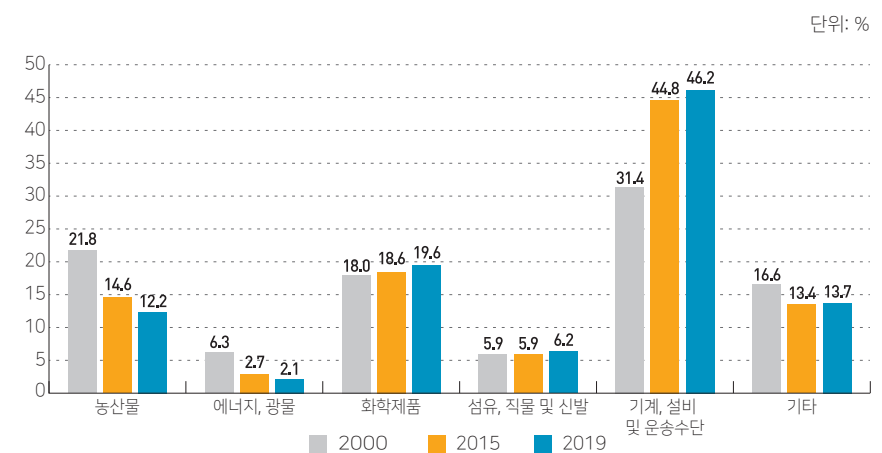


자료: 러시아통계청

수입에서는 기계, 설비 및 운송수단이 전체 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높은 비중

- 러시아의 수입에서는 기계 및 운송수단이 절반에 가까운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화학제품, 농산물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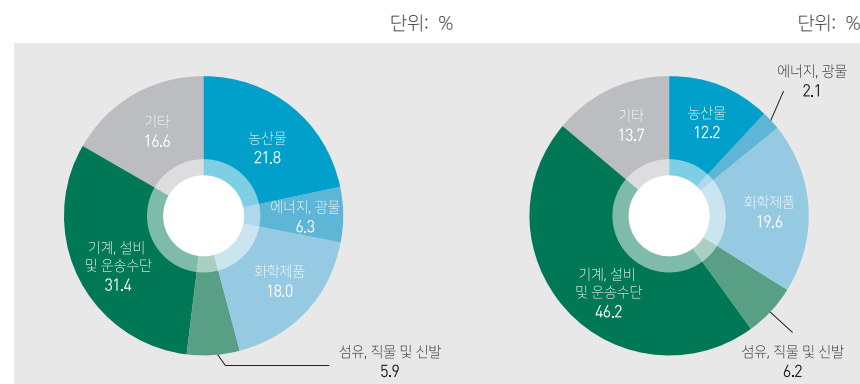
그림 15 러시아의 주요 수입품(2010·2015·2019년)



자료: 러시아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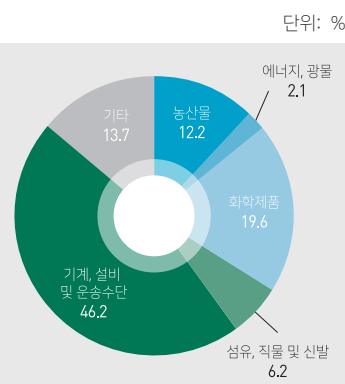
- 2019년 기준 기계 및 운송 수단이 전체 수입의 46%, 화학제품이 20%, 금속이 7%, 섬유 및 신발이 6%의 비중을 기록함.
- 지난 9년 동안 러시아의 수입에서 기계, 설비 및 운송수단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농산물과 에너지 및 광물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6 러시아의 주요 수입품
(2010년)



자료: 러시아통계청

그림 17 러시아의 주요 수입품
(2019년)



자료: 러시아통계청

러시아의 WTO 가입과 대외경제협력

- [WTO 가입] 러시아는 1993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추진하였으며, 18년간의 오랜 협상 끝에 2012년 8월 WTO에 15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음.
- WTO 가입 후 러시아는 자동차, 제약, 화학 등 다수 품목의 수입관세율을 인하하고 국내 농업보조금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각국과의 무역 분쟁 절차에서 WTO 규정을 따르게 되었음. 전반적으로 러시아는 WTO 가입으로 에너지, 철강 등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제조업은 취약한 경쟁력으로 인해 타격을 받은 것으로 평가됨.¹²⁾
- G20 국가 중에서 유일한 WTO 미가입국이었던 러시아는 WTO 가입으로 경제 개방도가 상승하고 외국 기업들의 진출 환경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12) <http://vz.ru> 2019.8.22.

- [CISFTA] 러시아가 가입해 있는 CIS 회원국 간에 FTA가 체결되어 있음.
 - 2011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즈, 몰도바, 타지키스탄 등 8개국이 CIS FTA 체결에 서명하여 2012년 10월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2013년 5월 우즈베키스탄이 체결에 서명하여 2014년 5월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음.¹³⁾
 - 현재 CIS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몰도바, 타지키스탄 등이 정회원국으로 가입해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음.¹⁴⁾
- [EAEU 협력]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내에서 회원국 간의 교역, 투자 등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즈 등 5개국과 EAEU에 가입해 있음. 가입국들은 대외적으로는 단일 관세를 유지하고, 역내 교역에서는 관세를 철폐하였음. EAEU는 개발은행인 유라시아개발은행(Eurasian Development Bank)을 설립하여 역내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에너지, 금융 등 여러 산업 부문에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 EAEU는 베트남과 FTA를 체결(2015년 5월 서명, 2016년 10월 발효)하였으며, 이란, 싱가포르, 세르비아 등과는 서명 후 발효를 앞두고 있음. 이 밖에도 한국,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 FTA 체결을 논의하는 등 대외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러시아의 개별 FTA] 러시아는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세르비아 등의 국가와 개별적으로 FTA를 체결하였음.

13)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은 참여하고 있지 않음. 또한 러시아는 2015년 12월 푸틴 대통령의 서명으로 2016년 1월부터 우크라이나와의 CISFTA 효력을 중단시켰으며, 이에 대응하여 우크라이나 정부도 2016년 1월부터 효력을 중단시킴.

14) 발트 3국을 제외한 구소련 국가 중에서 러시아와 분쟁을 겪은 조지아는 2008년 CIS를 탈퇴하였으며, 2018년에는 크림반도 및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의 분쟁으로 우크라이나가 CIS 대표부 활동을 중단하였음.

러시아와 EU 및 중국과의 교역

- [대EU 교역] 러시아의 대EU 수출품은 에너지 자원이 약 70%로 최대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 대EU 수입에서는 기계류 및 자동차의 비중이 43.3%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화학제품, 기타 공산품 등이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
 - EU 개별 국가 중에서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규모가 큰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이 러시아의 주요 교역상대국임.

표 14 러시아의 대EU 주요 교역 품목의 수출입 비중(2009·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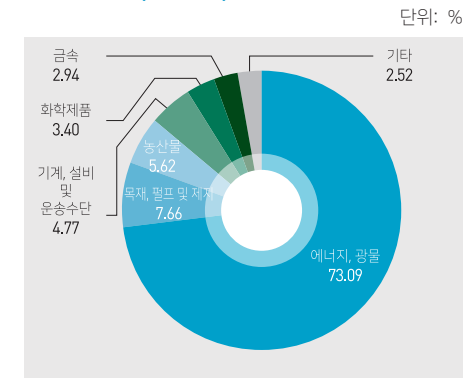
단위: %

품목	2009		2019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광물성 원료	74.6	0.9	68.4	0.7
화학제품	2.7	17.3	3.8	22.6
기계 및 운송장비	1.0	43.1	1.7	43.3
식품 및 음료	0.5	9.4	1.1	6.4
비식용원자재	2.1	1.7	3.3	2.2
기타 제작용품	6.7	24.9	11.4	23.4
기타 제품	12.4	2.6	10.3	0.3
전체	100	100	100	100

자료: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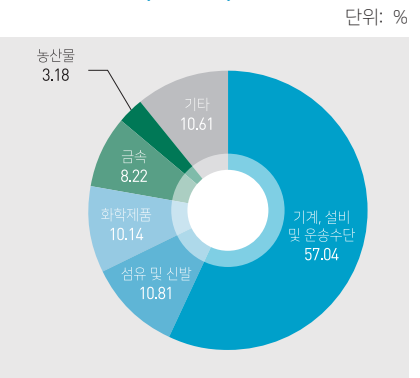
- [대중국 교역] 러시아는 중국으로 연결된 송유관, 가스관을 통해 에너지를 수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수출에서 에너지 및 광물의 수출 비중이 73.09%에 달하고 있음.
 - 러시아의 대중국 수입에서는 기계, 설비 및 운송수단이 57.04%를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섬유 및 신발(10.81%), 화학제품(10.14%) 등이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

그림 18 러시아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 (2019년)



자료: 러시아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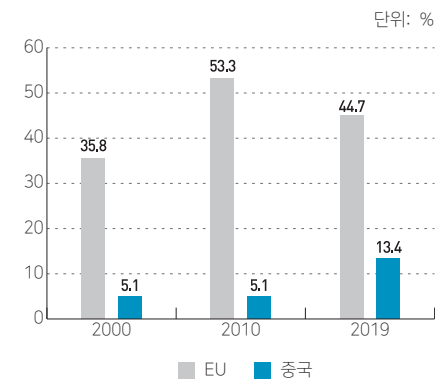
그림 19 러시아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 (2019년)



자료: 러시아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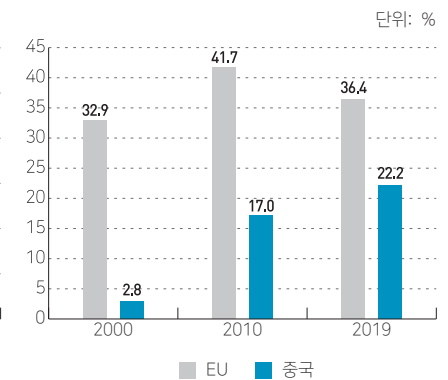
- [EU, 중국과의 교역 비중 변동] 러시아의 교역에서는 EU가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아래 [그림 20], [그림 21]에서 나타나듯이, 2019년 러시아의 대EU 교역은 2010년과 비교해 러시아 전체의 수출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감소한 반면, 중국의 수출 및 수입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였음.

그림 20 러시아의 대EU 및 중국 수출 비중



자료: 러시아통계청

그림 21 러시아의 대EU 및 중국 수입 비중



자료: 러시아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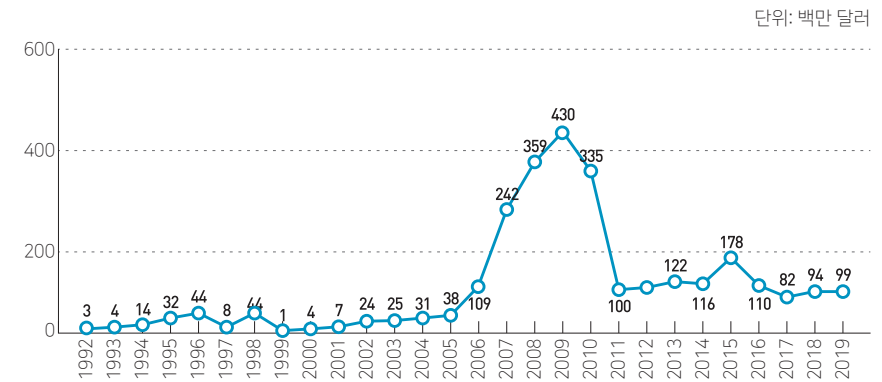
IV. 한·러 투자 협력

1.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현황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 2019년 기준 한국 기업의 대러시아 투자금액은 27억 6,600만 달러이며, 전체 진출 법인 수는 601개에 이릅니다.
 - 이는 한국의 전 세계 투자금액의 0.57%에 불과한 수준임.
 - 대러시아 투자는 2007~10년 동안 연평균 약 3.4억 달러를 기록하며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2009년 4.3억 달러로 가장 높은 투자액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2011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평균 투자액이 약 1.1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저조하였음.
- 전반적으로 2006~10년 동안 신규 법인이 다수 설립되고 투자 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남.
 - 이 시기에 한국의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오리온 등이 러시아 현지에 생산공장을 건설하였음.
 - 특히 2016년 이후,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규모는 연 1억 달러 미만을 기록하였음. 이는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유가하락으로 인한 러시아의 경기침체와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원인인 것으로 평가됨.

그림 22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1992~2019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 신규 법인의 진출에서도 2007년 52개, 2008년 62개로 많은 수를 기록했으며, 이후에는 연 35개 이하에 머물고 있음.

표 15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금액과 신규 법인 수 (1992~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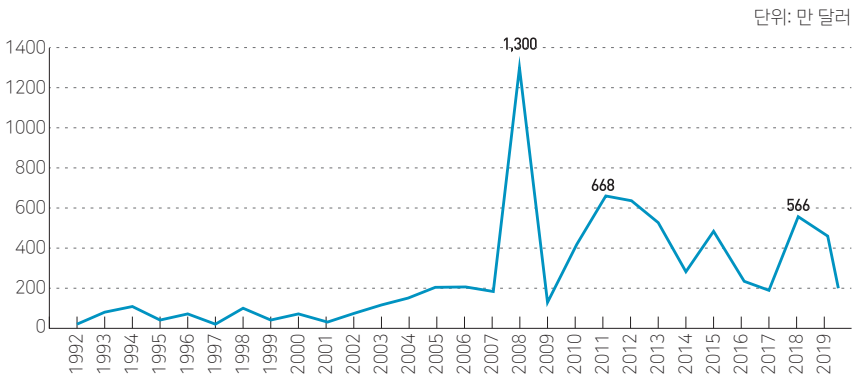
연도	투자금액 (백만 달러)	신규법인 수
1992	3	7
1993	4	13
1994	14	22
1995	32	27
1996	44	15
1997	8	7
1998	44	5
1999	1	7
2000	4	12
2001	7	12
2002	24	11
2003	25	18
2004	31	17
2005	38	29
2006	109	22
2007	242	52
2008	359	62
2009	430	32
2010	335	22
2011	100	33
2012	109	16
2013	122	27
2014	116	21
2015	178	18
2016	110	18
2017	82	21
2018	94	26
2019	99	29
합계	2,766	60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 음영은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금액이 연 2억 달러를 기록한 연도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

-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는 2020년 2분기까지 누적금액으로 7,542만 달러를 기록하였음.¹⁵⁾
 -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는 2008년 1,300만 달러로 최대 금액을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2011년 668만 달러, 2018년 566만 달러 등으로 높은 투자액을 기록하였음.
 - 2008년에는 제조업 부문(운송용기계)에 비교적 큰 규모의 투자가 있었으며, 2010~14년에는 도소매, 2015년에는 부동산 등 서비스 부문, 2018년에는 농축수산물 및 광업 부문에 주로 투자가 이루어졌음.

그림 23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 (1992~2019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http://motie.go.kr/motie/py/sa/investstatse/investstats.jsp>)

- 업종별로는 도소매 3,625만 달러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2,263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이에 따라 투자금액 비중으로는 도소매업에 대한 투자가 48%,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30%로 두 부문의 비중이 78%에 달하며, 그다음으로 부동산업, 농축수산물 및 광업 부문의 순으로 많은 금액이 투자되었음.

15)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http://motie.go.kr/motie/py/sa/investstatse/investstats.jsp>)

2.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성과

대러시아 투자에서는 제조업 부문, 도소매업, 농업 등에 주로 투자

- 제조업은 186건의 신규 법인에 15.93억 달러의 투자를 기록하였으며, 도소매업은 131건의 3.65억 달러에 달하며, 농업은 63건의 2.22억 달러에 이릅니다.
 - 이 밖에는 광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등이 한국의 주요 대러시아 투자(금액 기준) 부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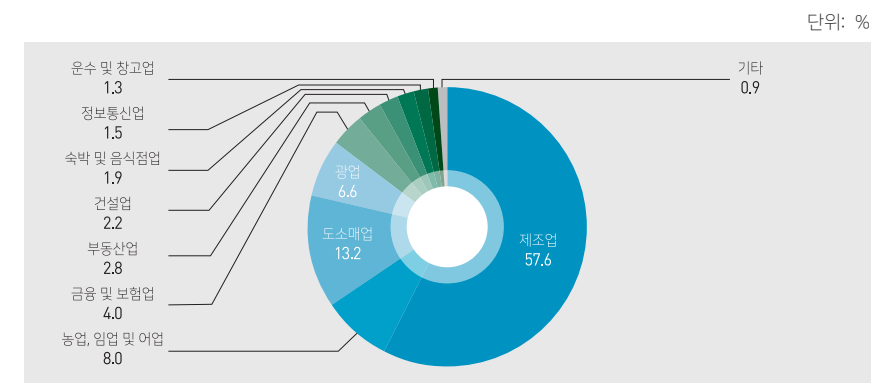
표 16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금액과 신규 법인 수(1992~2019년)

업종	신규 법인 수	투자금액(백만 달러)
전체	601	2,766
제조업	186	1,593
도소매업	131	365
농업, 임업 및 어업	63	222
광업	13	182
금융 및 보험업	7	110
부동산업	25	77
건설업	44	62
숙박 및 음식점업	8	52
정보통신업	22	42
운수 및 창고업	38	3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	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	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1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	2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	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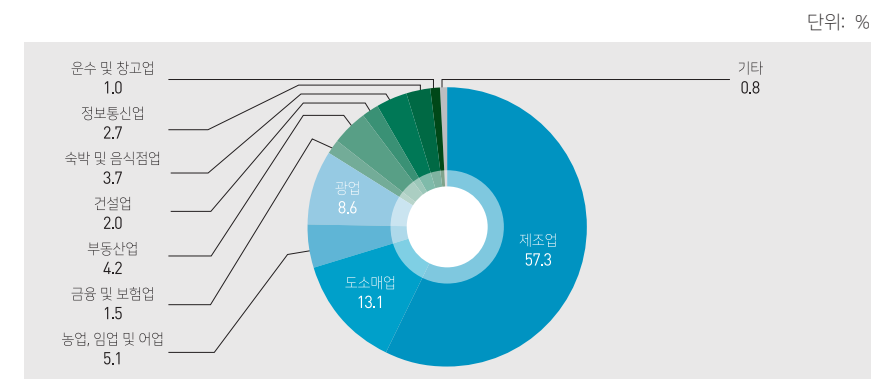
-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는 전체 대러시아 투자의 57.6%를 점유함.
 - 2010년 이후에는 이전과 비교하여 제조업의 투자 비중이 유지된 가운데 농업, 금융 및 보험업에서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부동산, 숙박 및 음식점은 투자 비중이 감소하였음.
- 제조업에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17건, 7.53억 달러(자동차 판매 포함 30건, 7.84억 달러)로 가장 큰 규모임.
 - 또한 전자부품, 식료품, 전기장비, 담배 등의 부문에 대한 투자가 활발함.
 - 2010년 이후에는 이전과 비교하여 제조업 가운데 자동차 부문의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전자부품, 컴퓨터, 음향 및 통신장비 부문의 투자 비중은 감소하였음.

그림 24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투자 부문과 비중(1992~2019년 누적)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그림 25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투자 부문과 비중(1992~2009년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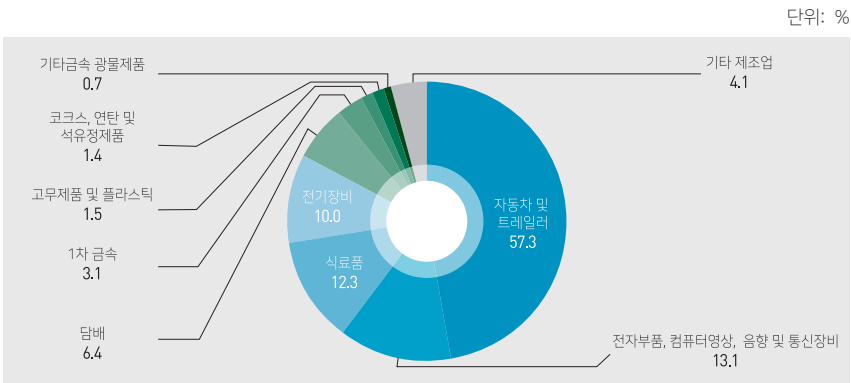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표 17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제조업 내 중분류(1992~2019년 누적)

부문	법인 수	투자금액
제조업 전체	186	1,593
자동차 및 트레일러	17	753
전자부품	17	209
식료품	19	196
전기장비	9	159
담배	1	102
1차 금속	1	5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4	24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5	23
비금속 광물제품	6	1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8	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9	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8	6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9	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11	3
가죽, 가방 및 신발	3	3
음료	3	2
기타 제조업	37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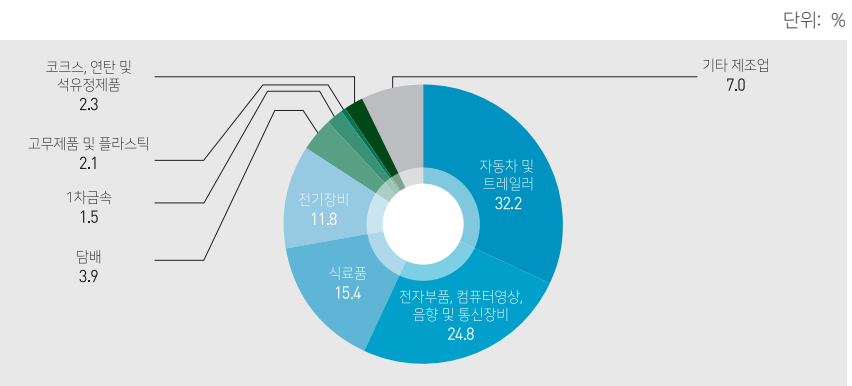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그림 26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제조업 내 중분류(1992~2019년 누적)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그림 27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제조업 내 중분류(1992~2009년 누적)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3. 건설·인프라 개발 부문의 주요 협력 사례

한국 기업들은 아파트 건축, 사업관리 및 설계, 타당성 조사 등에서 성과¹⁶⁾

- 계룡건설은 2004년 이후 극동러시아 하바롭스크 지역에 진출하여 1, 2차에 걸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였음.
 - 2007~10년(1차)과 2011~14년(2차)에 걸쳐 아파트를 건설하였으며, 향후 3차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삼성물산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락타센터 건설사업관리 용역(2014년)

16) 건설 부문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 기업들이 현지 공사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실패한 바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 2019년 3월 이르쿠츠크의 공항청사 건설 사업에 인천공항공사 컨소시엄이 탈락한 것이 있음. 인천공항공사는 러시아 국영 방산업체 로즈텍,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로즈네프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여 당초 잠정투자자로 결정되었으나 최종 선정에서는 탈락하여 참여가 무산되었음.

- 삼성물산은 2014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랜드마크 프로젝트인 락타 센터(Lakhta Center)¹⁷⁾ 프로젝트(공사비 약25억 달러 추정)의 건설사업관리(CM) 용역을 1억 6천만 달러에 수주하였음. 락타 센터는 유럽 최고의 높이인 460.7m로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내에 건설될 예정임.
-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이르쿠츠크 ‘바이칼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및 이르쿠츠크 공항 증·개축 종합 컨설팅(2013년)
 - 희림 컨소시엄은 2013년 전체 계약금액 79만 달러에 이르는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바이칼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사업과 50억 달러 규모의 이르쿠츠크 공항 증·개축에 대한 종합컨설팅을 수주하였음.¹⁸⁾

공항·철도 용역 및 타당성 조사

- 인천국제공항은 2011년 극동러시아 하바롭스크 공항 지분의 10%를 710만 달러에 인수하여 공항 운영, 상업시설, 항공마케팅 컨설팅 용역을 수행한 후 2017년 매각하였음.¹⁹⁾
 - 러시아 측은 한국 공항의 지분 인수를 통해 한국의 공항 운영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는 방안을 고려함.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국토교통부의 정책지원 사업으로 러시아 우랄 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였음.²⁰⁾
 - 러시아 우랄 고속철도 사업은 모스크바와 중국 베이징 노선 가운데 첼랴빈스크~예카테린부르크(218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우랄고속철도(UHSR)가 러시아 연방정부에 제안한 사업임.

17)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인 Gazprom Neft사가 2014년 9월 발주한 사업으로, 건물은 지하 3층·지상 86층 규모이며 사무실, 전시장, 쇼핑몰 등 복합빌딩으로 2018년 준공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5년 8월 31일

18) <http://heerim.com>; <https://www.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2013년 11월 13일

19) https://www.airport.kr/co_cnt/ko/cuspar/mamdis/ovbupe/ovbupe.do

20) 국가철도공단 보도자료. 2019년 1월 17일 <http://www.kr.or.kr>. 우랄고속철도(UHSR)는 러시아 첼랴빈스크 주와 스베르들롭스크 주가 지분 참여한 사업제안자임.

한국 기업의 항만 인프라 타당성 조사 참여

- 주요 협력 사례로 최근 한국 기업들이 극동러시아의 항만 인프라 개발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바 있음.
 -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2017년 5월 극동러시아 슬라비안카 항만 개발의 기본계획 검토와 타당성 조사에 대한 협의를 한국 해양수산부에 요청하였으며, 이후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국 기업이 이를 수행한 바 있음.
 - 또한 한국은 2019년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볼쇼이카멘 물류단지, 포디아폴스키 항만 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V. 한·러 에너지 협력

1. 한·러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

가. 한국의 대러시아 에너지 협력 필요성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와의 협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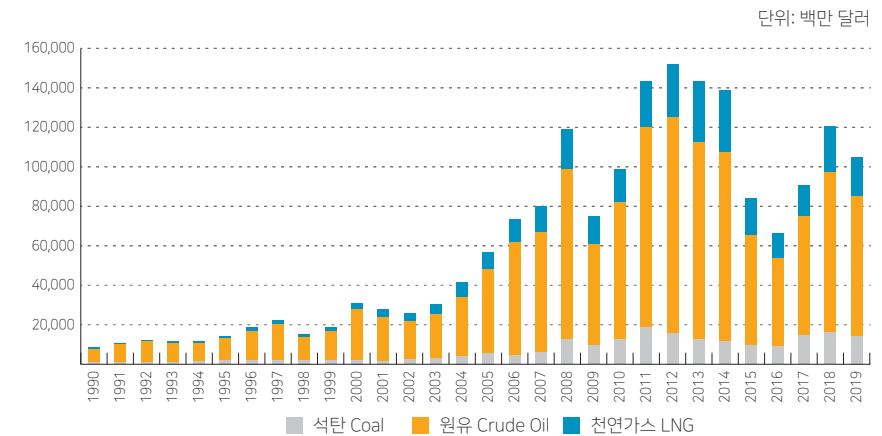
- 한국은 에너지 자원의 수입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9년 한국의 상품수입 총액에서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의 비중은 20.9%를 기록하였음.
 -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1990년 87.8%에서 점차 상승하여 2010년대 들어 93~97%로 높게 지속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93.4%를 기록하였음.²¹⁾
 - 2019년 상품수입 총액에서 3대 에너지 자원의 품목별 비중은 원유 14.0%, 천연가스 4.1%, 석탄 2.8%로 총 20.9%를 차지하였음.²²⁾
 - 석유제품과 우라늄을 포함할 경우, 상품수입 총액에서 에너지 자원의 비중은 25.2%에 달함. 이는 1990년의 15.6%와 비교해 9.6%p 증가한 것임.²³⁾

21)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2020.4. 수입 의존도는 1차 에너지 중에서 수입한 에너지의 비중임.

22)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23)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2020.4.

그림 28 한국의 연도별 원유, 천연가스(LNG), 석탄 수입액(1990~2019년)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2020.4.

- 품목별로는 천연가스와 석탄의 수입액 증가율이 높아 이들 품목의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2019년의 3대 에너지 품목의 수입액은 2000년과 비교하여 원유가 2.8배, 천연가스는 5.4배, 석탄은 6.5배 증가하였음.²⁴⁾ 이는 한국의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원유의 비중이 감소하고 천연가스와 석탄의 비중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임.
 - 따라서 향후 한국은 러시아의 동부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에서 개발 및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천연가스와 석탄의 도입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됨.²⁵⁾ 특히, 최근 LNG의 생산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러시아의 사할린, 야말 등으로부터 LNG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4) 원유는 2000년 252.2억 달러에서 2019년 702.5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천연가스는 2000년 38.8억 달러에서 2019년 205.7억 달러, 석탄은 2000년 21.9억 달러에서 2019년에 142.1억 달러로 각각 증가하였음.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25)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공급원에서 3대 에너지 품목의 비중은 1990년의 경우 석유 54.0%, 석탄 26.0%, 천연가스(LNG) 3.3%였으나, 2019년에는 석유 38.7%, 석탄 27.0%, 천연가스(LNG) 17.6%로 천연가스(LNG)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2020.4.)

에너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중동 지역의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여 러시아로의 수입선 다변화 고려

- 한국은 전통적으로 에너지 자원의 수입을 중동 지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원유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산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70% 이상이며, 천연가스는 카타르(33%), 오만(11.9%) 등 중동산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45%를 기록하고 있음.
- 그러나 중동 지역은 역내 분쟁의 발생 등 안보상의 취약성을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종종 에너지 자원 수급 불안정의 문제가 발생함.
 - 최근 중동산 에너지 수급의 대표적인 불안정 사례로는 2018년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에 따라 전체 원유 수입 비중의 13.2%(2017년 기준)에 달했던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단된 것을 꼽을 수 있음.
 - 또한, 미국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갈등 심화로 이란이 원유의 세계적인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위협을 가하고 있는 점도 수급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는 향후 중동 이외 지역으로부터 안정적인 에너지 수입선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대체 수입선으로 러시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 자원의 개발 및 생산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극동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항만은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 있으므로 이를 통해 중동 지역 대비 수송비용의 절감도 도모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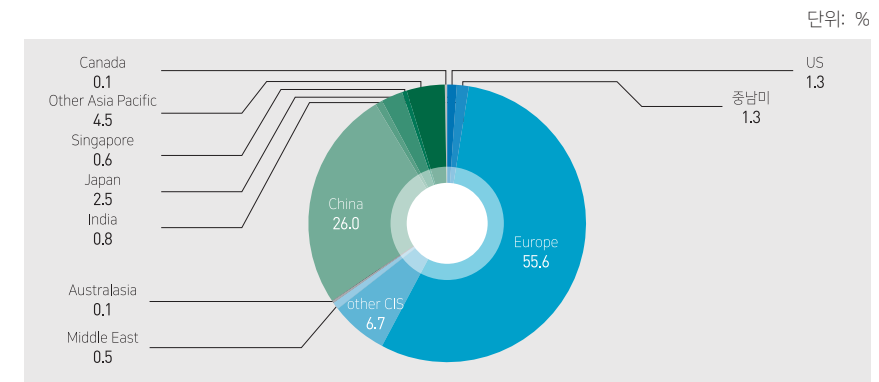
나. 러시아의 대한민국 에너지 협력 필요성

주요 수출 시장인 유럽의 수입 및 소비 규모 감소에 대응할 필요

- 유럽은 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2018년 러시아산 원유 수출의 55.6%, 천연가스 수출의 87.0%(터키 3.2% 포함) 및 석탄 수출의 48.5%를 점유하고 있음.²⁶⁾

26)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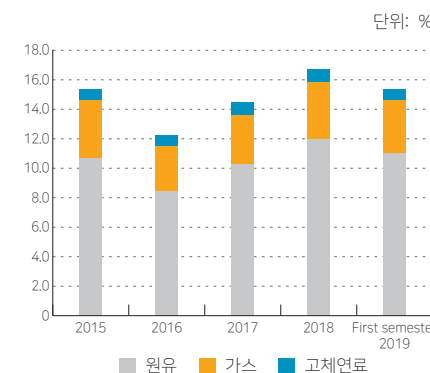
그림 29 러시아 원유 수출의 지역별 비중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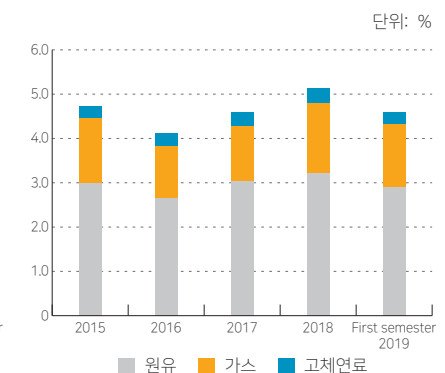
- 그러나 유럽의 에너지 수입 규모는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정체되고 있으므로 [그림 30]과 [그림 31]에서 보듯이 EU 28개국의 전체 상품수입에서 에너지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러시아산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이후 정체되어 있음.

그림 30 EU 전체 상품수입에서 에너지의 비중 (2015~19년 1분기)



자료: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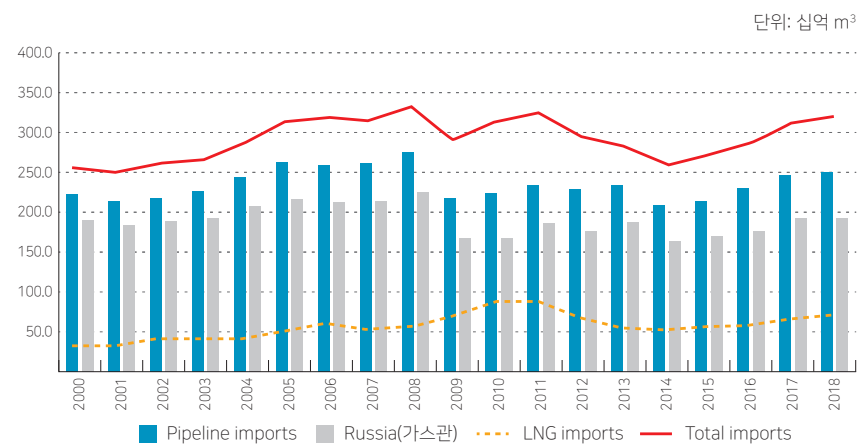
그림 31 EU 전체 상품수입에서 러시아산 에너지의 비중 (2015~19년 1분기)



자료: Eurostat

-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한 유럽 지역의 천연가스 수입에서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85.2%에서 2018년에는 77.8%로 감소하였음.²⁷⁾
- 한편, [그림 32]에서처럼 러시아의 대유럽 에너지 수출이 정체되고 있는 동안 유럽은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에서의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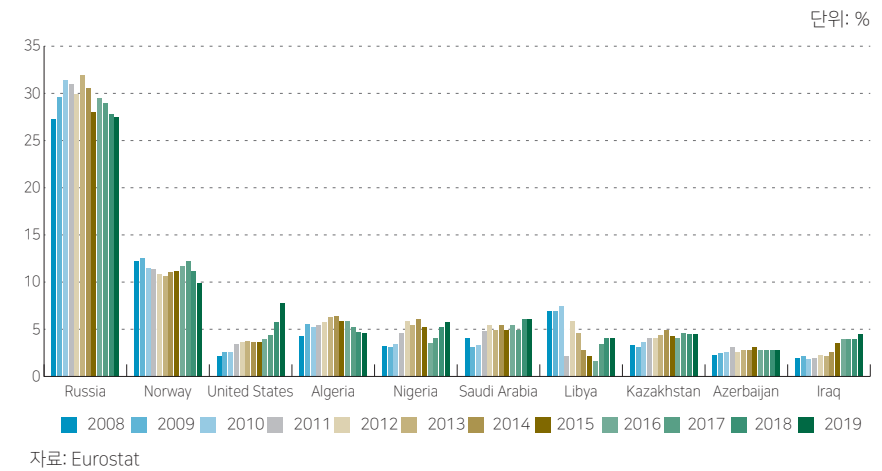
그림 32 유럽의 천연가스 수입 규모 추이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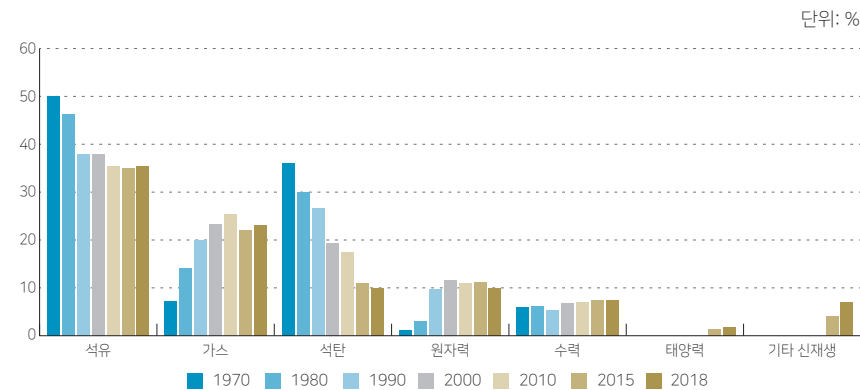
27) 2018년 기준 유럽의 LNG 수입은 카타르산 31.6%, 나이지리아산 17.5%, 알제리산 17.3% 등이었으며, 러시아산의 비중은 9.5%에 불과함.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9)

그림 33 유럽의 국가별 에너지·광물 수입 비중 변동(2008~2019년)



- 유럽 지역의 에너지 소비 구조는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증가하고 전통 에너지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향후 러시아의 대유럽 에너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전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 유럽 지역의 비중은 2000년 20.7%에서 2010년 16.6%, 2018년 14.8%로 감소하였음. 한편, 유럽의 에너지 소비에서 수력, 태양력 등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은 2010년 10.3%에서 2018년에는 15.6%로 증가하였음.
 -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러시아의 대유럽 주력 수출품목인 원유, 천연가스 등 전통 에너지의 수출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림 34 유럽의 에너지 부문별 소비 비중(1970~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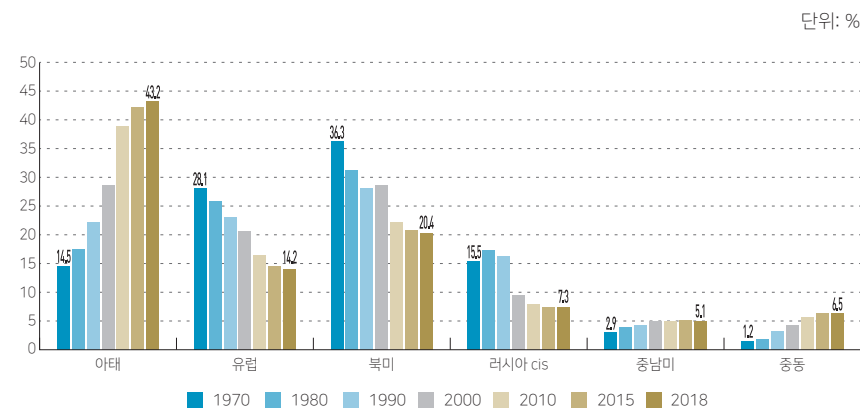


자료: 러시아 석유가스 콤플렉스, 2018(Нефтегазовый комплекс России, 2018)

러시아는 세계 최대 에너지 시장으로 부상한 동북아시아 시장에 대한 수출 증대 필요

-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소비는 급격한 증가 추세를 지속하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전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중은 1970년 14.5%에서 2000년 28.6%로 증가하였으며, 이후에도 빠르게 상승하여 2018년에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43.2%를 점유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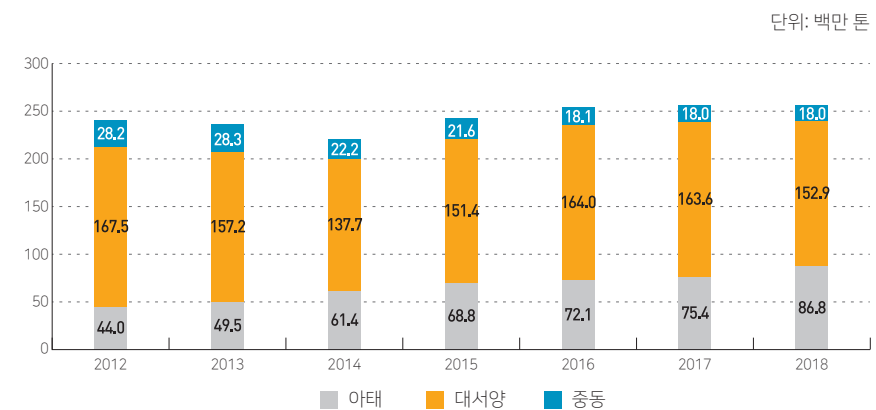
그림 35 세계 지역별 에너지 소비 비중(1970~2018년)



자료: 러시아 석유가스 콤플렉스, 2018(Нефтегазовый комплекс России, 2018)

- 따라서 러시아는 향후 한국, 중국 등 동북아시아 시장의 에너지 소비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동북아시아 3개국은 세계 에너지 소비의 29.1%(중국 23.6%[세계 1위], 일본 3.3%, 한국 2.2%)를 점유하고 있음. 따라서 세계 에너지 수입에서도 높은 비중을 기록하여 2018년 기준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 일본은 세계 최대의 LNG 수입국임.
 - 이미 러시아는 중국으로 연결되는 송유관과 가스관을 건설하여 전통 에너지 수출량을 늘리고 있으며, 러시아의 대아태 지역 전통 에너지 수출 비중은 2000년 28.6%에서 2010년 38.9%, 2018년 43.2%로 빠르게 증가하였음.²⁸⁾

그림 36 러시아의 지역별 원유 수출 규모



자료: 러시아 석유가스 콤플렉스, 2018(Нефтегазовый комплекс России, 2018)

- 특히, 러시아는 LNG 생산을 크게 늘리면서 한국, 일본 등 세계 최대의 LNG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18년 러시아는 249억 m³의 LNG를 수출하였으며, 이 중 일본에 94억 m³, 대만에 32억 m³, 한국에 26억 m³, 중국에 13억 m³를 각각 수출하여 동북아시아 4개국에 대한 수출이 러시아 전체 LNG 수출의 66.2%를 점유함.²⁹⁾

28) 러시아 석유가스 콤플렉스, 2018(Нефтегазовый комплекс России, 2018)

29)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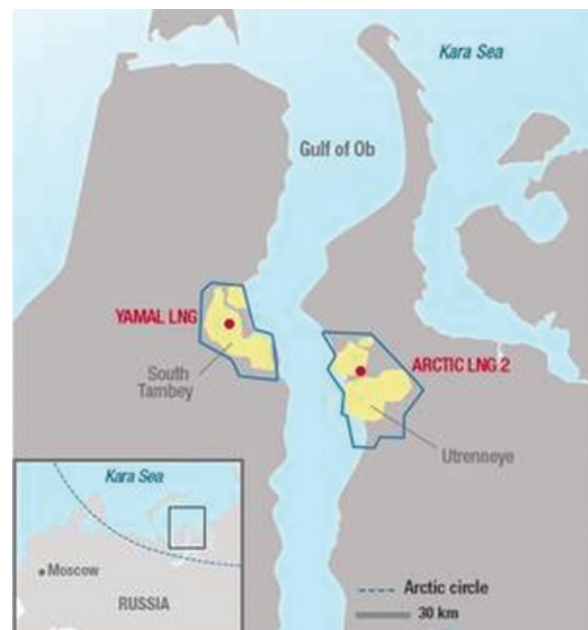
- 러시아는 2009년 사할린-2에서 LNG 생산을 개시한 이후 2017년 말 야말 LNG에서 생산을 개시하였으며, 현재는 북극 LNG-2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또한 사할린-1에서도 2027년부터 LNG 생산을 계획하고 있음.

표 18 러시아 LNG 생산 현황 및 계획

구분	지역	주요 내용
현재 생산 중	사할린-2	- 2009년부터 생산, 일본 기업이 지분 보유 - 일본, 한국, 대만 등으로 수출 - 2018년 기준 249억 m ³ (1,830만 톤) 생산
	야말 LNG	- 2017년부터 생산, 연 1,650만 톤 생산 가능 - 중국의 CNPC, 실크로드 펀드가 지분 보유 - 중국, 일본으로 수출
계획 중	북극 LNG-2	- 2023년 생산 개시 계획 - 연 1,980만 톤 생산 가능
	사할린-1	- 2027년 생산 개시 계획, 일본 기업이 지분 보유 - 극동러시아의 드-카스트리 항만에서 연 620만 톤 규모의 LNG 플랜트 건설 계획

자료: 각종 자료 참고 작성

그림 37 러시아 야말 LNG 및 북극 LNG 2

자료: <https://www.marinelink.com>

[Box 2] 러시아 경제와 에너지 부문

- 러시아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와 더불어 원유·천연가스의 세계 3대 생산국 및 수출국임
 - 러시아의 천연가스 매장량과 수출량은 세계 1위이며, LNG 수출은 세계 시장에서 5.8%의 비중을 차지하여 세계 6위의 수출국임.
 - 원유 수출은 전 세계의 13.0%(세계 2위), 석탄 수출은 전 세계의 15.9%(세계 3위)를 점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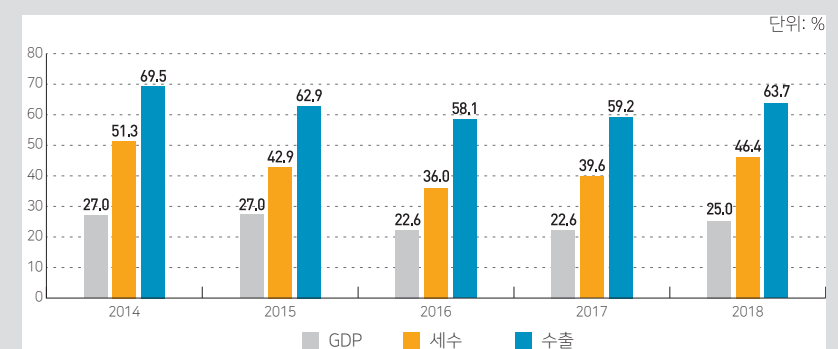
표 19 러시아의 원유와 천연가스(LNG) 현황

부문	원유			천연가스(LNG)		
	규모	비중 (%)	세계 순위	규모	비중 (%)	세계 순위
매장	146억 톤	6	6	38.9조 m ³	20	1
생산	5억 6,330만 톤	12.6	3	6,6950억 m ³	17.3	2
수출	2억 7,590만 톤	13	2	2,230억 m ³ (249억 m ³)	29(5.8)	1(6)
가채연수	25.4			58.2		

자료: 러시아 광물-에너지 자원 현황, 2019(Состояние 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минерально-сырьевых ресурс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9);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9.

- 러시아의 에너지 부문은 2018년 기준 GDP의 25%, 세수의 46.4%, 수출의 63.7%를 점유함.

그림 38 러시아 경제에서 에너지 부문의 비중



자료: 이성규, 「한·러 협력의 부문별 성과와 과제: 에너지 부문」, 2019년 12월 발표문

- 석유·천연가스 부문은 2019년 러시아 GDP의 11.2%, 예산수입의 39.3%를 점유한 것으로 평가되며, 전체 수출에서는 2018년 기준 2,618억 달러로 59.1%를 점유함.³⁰⁾

2. 한·러 수교 이후 에너지 협력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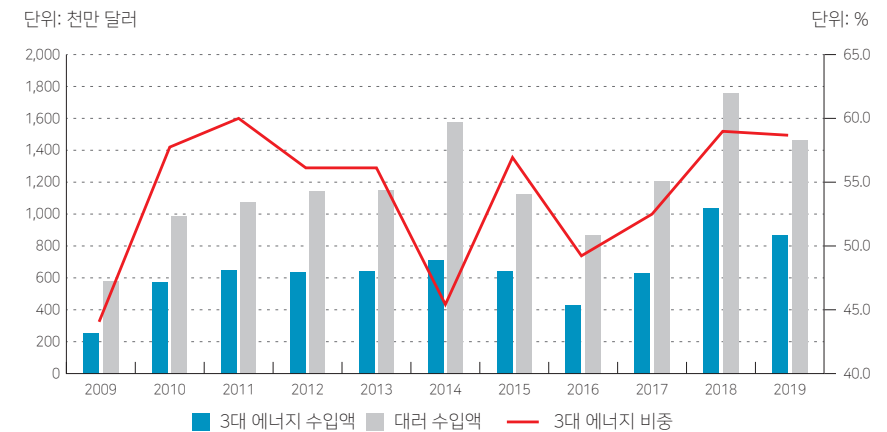
가. 한·러 에너지 교역 현황

3대 에너지 품목의 수입이 러시아로부터의 전체 수입의 약 60%를 점유

- 한국은 1990년 러시아와 수교 후 1993년부터 러시아산 원유와 석탄을 수입 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음.
 - 우리나라 기업들은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자원 생산지인 동시베리아 지역에서 운송된 원유와 석탄을 극동러시아의 항만을 통해 수입하는 한편, 사할린에서 생산된 LNG도 수입하고 있음.
- 러시아는 한국의 주요 자원 교역상대국으로, 2019년 기준 원유, 천연가스, 석탄의 3대 주요 에너지 자원의 수입이 러시아로부터의 전체 상품 수입에서 약 60%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
 -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수입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한국의 대러시아 상품 수입액에서 3대 주요 에너지(원유, 천연가스, 석탄) 수입액의 비중이 40%를 상회하였으며, 2019년에는 58.6%를 기록하였음. 이는 같은 해 한국의 전체 상품 수입액에서 3대 주요 에너지 품목의 비중(20.9%)을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임.

30) <https://1prime.ru>; www.eeg.ru; 러시아 석유가스 콤플렉스. 2018(Нефтегазовый комплекс России. 2018).

그림 39 한국의 대러시아 에너지 수입 규모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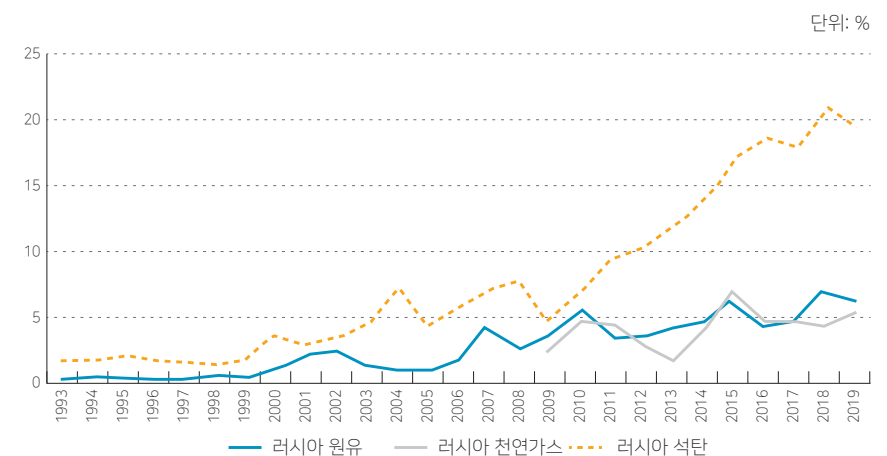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2019년 기준 3대 에너지 품목의 대러시아 수입 비중은 원유가 31.8%, 석탄이 19.3%, 천연가스가 7.5%를 각각 기록하고 있음.

한국의 전체 에너지 수입에서 러시아산 에너지의 비중 증가 추세

그림 40 한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자원 수입 비중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원유] 우리나라의 전체 원유 수입에서 러시아산의 비중(이하 금액기준)은 1993년 0.4%에서 2019년 6.6%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7.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이처럼 러시아는 한국의 주요 원유 수입국으로 부상하여 2005년 12번째, 2010년 9번째 수입상대국에서 2019년에는 6번째 수입상대국으로 올라섰음.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5대 원유 수입상대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미국, 이라크, UAE이며, 미국을 제외한 4개국이 모두 중동 국가로 중동 의존도가 여전히 매우 높음.
- [천연가스(LNG)]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음. 전체 천연가스 수입에서 러시아산의 비중은 2009년 2.5%에서 2019년 5.3%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는 6.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음.
 - 2005년 7월 한국가스공사는 사할린-2측과 20년간의 LNG 장기 수입계약(연간 150만 톤)을 체결하였으며, 2009년 4월 첫 번째 공급이 이루어짐.
 - 러시아는 2019년 기준 한국의 6번째 천연가스 수입상대국으로, 수입이 본격화된 2010년부터 5~6번째 수입상대국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음. 현재 한국의 주요 천연가스 수입상대국은 카타르, 오만 등 중동 지역 국가들임.
 - 2018년 기준 한국은 26억 m³의 러시아산 LNG를 수입하여 일본, 대만에 이어 러시아의 세 번째 LNG 수입국이 되었음.
- 전체 수입 석탄에서 러시아산의 비중은 2019년 19.7%로 급증
 - 전체 수입 석탄에서 러시아산의 비중은 1993년 1.7%에서 2019년 19.7%로 급격히 증가하여 러시아는 오스트레일리아(40.4%)에 이어 한국의 2번째 석탄 수입상대국이 되었으며, 인도네시아, 캐나다, 미국과 더불어 한국의 5대 석탄 수입상대국임. 2018년에는 20.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나. 한·러 에너지 개발 및 기타 협력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에너지 개발 투자는 대부분 성과 미흡

- 서캄차트카 유전 개발 사업 등 한국 기업의 대러시아 에너지 개발 투자는 대부분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 2000년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와 함께 추진된 코빅타 가스전 개발 및 서캄차트카 유가스전 개발 등 한국 기업들이 참여한 개발 사업은 모두 진행이 중단됨.
- 또한 2018년 6월 한·러 정상회담 기간에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Novatek은 북극 LNG-2 프로젝트에 한국 측의 참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이후 실질적인 참여로 연결되지 않음.

표 20 한국의 대러시아 에너지 개발 사업

부문	지역	주요 내용
가스	코빅타 가스전	- 한·중·러 3국, 2000년 11월 이르쿠츠크 PNG 사업 공동 타당성 조사 추진을 위한 협정서에 서명 - 2001년 1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타당성 조사 실시 - 2008년 10월 협정 기한 마감으로 종료
원유, 가스	한-러시아 서캄차트카 공동개발 (2004년)	- 2004년 한-러시아 서캄차트카 공동개발 개시(유전 추정매장량: 30억 배럴) - 2005~08년 Kamchatneftgaz(Rosneft 60%, 한국석유공사 40%) 유전 시추 - 2008년 7월 러시아 정부가 Kamchatneftgaz 탐사 라이선스 연장 기각 - 2009년 이후 러시아 Gazprom 주도로 독자적 시추작업 진행 중
LNG	북극 LNG-2	- 2018년 한국가스공사와 Novatek의 양해각서 체결, 한국의 참여 검토 - 실제 참여로 연결되지 않음

자료: 각종 자료 참고 작성

에너지 플랜트 수주, 에너지 장비 수출 및 조선 부문 협력에서 성과

-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에너지 개발 투자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대신 에너지 플랜트 수주 및 장비 수출에서 성과를 거두었음.
 - 삼성중공업과 풍림산업은 2000년대 중반 사할린에서 에너지를 개발하는 컨소시엄인 ‘사할린에너지사’에서 해양 플랫폼과 가스 가압기지 등의 플랜트를 수주한 바 있음.
-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LNG 연료 추진선, 탱커선 등도 활발히 수주하고 있음.
 - 삼성중공업은 2005년 이후 러시아 국영 석유·LNG 전문 해운회사 Sovcomflot로부터 쇠빙유조선 7척을, 현대중공업은 2017년 Sovcomflot에서 LNG 연료 사용 유조선 6척을 각각 수주하였음.

- 또한 현대중공업은 2017년 6월 즈베즈다-현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9년 7월 즈베즈다 조선소와 아프라막스급(11.4만 톤급) 탱커 4척에 대한 추가 분할건조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탱커선들은 Sovcomflot와 Rosneft가 각각 2척씩 발주한 것임.
- 아울러 한국 기업들은 야말 및 북극 LNG 프로젝트에 쇠빙 LNG 운반선을 공급하고 있음.
 - 대우조선해양은 러시아 야말 LNG 사업 관련 2014년 총 15척의 쇠빙 LNG 운반선을 5조 3,000억 원에 수주하여 2019년 말 인도를 완료하였음.
 - 삼성중공업은 2019년 11월 Novatek의 북극 LNG-2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LNG선 5척을 15억 달러에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³¹⁾

표 21 한국의 대러시아 에너지 개발 장비 및 조선 협력

부문	주요 내용
플랜트 수주	- 삼성중공업, 2003년 사할린에너지(SEIC: Sakhalin Energy Investment Co.)에서 4.5억 달러 규모의 해양 플랜트 2기(2.7만 톤 및 3.3만 톤 규모) 수주 (2003~07년)
가스가압 기지 공사 수주	- 풍림산업, 2006년 사할린에너지에서 8,973만 달러 규모의 사할린 가스 가압기지 공사 수주 (2006~08년)
LNG 연료 추진선, 탱커선 등 수주	- 삼성중공업은 2005년 이후 7척의 쇠빙유조선 수주하였으며, 현대중공업도 2017년 6척의 LNG 연료 사용 유조선 수주 - 현대중공업은 2019년 4척의 탱커선 수주
쇄빙 LNG 운반선 수주	- 대우조선해양, 2014년 야말 LNG-1, 쇠빙선 15척 수주, 5조 3,000억 원 규모, 2019년 말에 인도 완료 - 삼성중공업, 2019년 11월 15억 달러 규모의 쇠빙 LNG 운반선 수주

자료: 각종 자료 참고 작성

31) 아시아경제 2020년 4월 20일

다. 한·러 가스관 건설 추진

- [1차] 1993년 한·러 정상회담에서 사하공화국에서 북한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연결되는 가스관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결정하였으며, 1995~96년 양국이 공동으로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음.
 - 이 프로젝트의 전체 예상투자비는 175억~200억 달러에 달했으며 가스관 경로는 사하공화국의 차얀다 가스전에서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톡, 원산, 서울로 연결되는 4,800km의 구간으로, 시행사는 한국 측 컨소시엄(석유공사, 대우, LG 등 14개사)과 러시아 측 컨소시엄(Gazprom 등)이 검토되었으나 북한 영토의 통과 문제와 막대한 투자비, 가스관 건설 추진의 대내적 여건 미비 등으로 한국 측에서 사업을 중단하였음.
- [2차] 1999년 러시아와 중국이 추진 중이었던 이르쿠츠크 PNG³²⁾ 사업에 한국 측이 참여를 결정하였으며, 2001~03년에는 한·중·러 3국이 공동으로 이르쿠츠크 PNG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바 있음.
 - 예상투자비 110억 달러인 이 프로젝트의 가스관 경로는 이르쿠츠크의 코빅타 가스전에서 중국의 장춘, 선양, 다롄을 거쳐 한국의 서해를 통해 평택으로 연결되는 4,300km의 구간으로, 시행사는 한국 측 컨소시엄(한국가스공사 등), 러시아 TNK-BP, 중국 CNPC(국영석유회사) 등이었음.
 - 이후 2004년 러시아 정부가 통합가스공급(UGSS) 계획으로 사할린-콤소몰스크-하바롭스크를 연결하는 기존의 가스관을 블라디보스톡과 나호트카로 확장 연결하는 방안을 고려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됨.³³⁾
- [3차] 2008년 북한을 경유하는 한·러 가스관 건설에 합의하였으나, 이후 북한의 핵실험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음.
 - 당시 양국 간 PNG 합의의 주요 내용은 사할린-3이나 사하공화국의 차얀다 가스전에서 블라디보스톡(150km)-북한(740km)-한국(232km)으로 가스관을 건설하여 25년간 연간 10억 m³(750만 톤)의 가스를 공급하는 것이었으나, 이 합의와 이후의 논의는 2013년 2월 북한 핵실험으로 중단됨.

32) Pipeline Natural Gas. 가스전에서 채굴한 천연가스를 소비 지역까지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송·공급

33) 통합가스공급(UGSS)은 특정 가스전을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용으로 지정하지 않고, 러시아 영토 내에서 개발된 모든 가스전에서 통합 개발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대외 수출 사업과 함께 내수용 공급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가스 배관 및 수출 창구를 Gazprom으로 단일화하는 계획이었음.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우진 발표자료, 2017년 10월)

그림 41 남·북·러 가스관 노선도 구상안



자료: 한겨레신문 2018년 10월 25일

- [4차] 2018년의 한·러 정상회담에서 가스관 건설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하였으나, 미국의 대북제재 지속으로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임.
 - 2018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남·북·러 3각 협력을 위한 가스 분야 한·러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Gazprom이 가스관 연결 관련 경제성 및 기술성을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후 양국 당사자들은 공동연구를 위한 실무협의를 수차례 진행하였으나,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남북 협력에도 진전이 없어 더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음.

표 22 한·러 가스 파이프라인 추진

시기	관련 계기	주요 내용
1996년	1993년 한·러 정상회담	- 러·북한 경유-한국 가스 파이프라인 사업 타당성 검토 결정 - 1995~96년 한·러 공동으로 타당성 검토 - 사하 가스전 프로젝트 경로 : 사하 공화국 야쿠츠크 차얀다 가스전-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톡-원산-서울(4,800km) - 시행사: 한국 컨소시엄(석유공사, 대우, LG 등 14개사), 러시아 컨소시엄(Gazprom, 러시아 기업), 사하 컨소시엄 - 예상 투자비: 175억~200억 달러 - 북한 통과 문제, 투자비 과다, 건설 여건 미비 등으로 한국 측 사업 포기
2003년	1999년 중·러 추진 이르쿠츠크 PNG 참여 결정	- 2001~03 한·중·러 코빅타 가스전 타당성 조사 시행 - 2003년 11월 서해 노선 결정, 가격 협상 추진 - 가스전 경로: 이르쿠츠크 코빅타 가스전-중국 장춘-선양-다렌-한국 서해-평택 4,300km (선양-신의주-평양-서울 노선도 검토) - 시행사: 한국 컨소시엄(가스공사 등), 러시아 TNK-BP, 중국 CNPC 등 - 예상 투자비: 40억 달러(전체 176억 달러, 가스전 64.5억 달러, 가스관 11.5억 달러) - 도입량: 30년간 연 700만 톤의 가스 도입 - 2003년 러시아 정부의 UGSS 계획 추진으로 사업 무산
2008년	2008년 한·러 정상회담에서 남·북·러 PNG 합의	- 2008년 한·러 PNG 합의 주요 내용: 사할린-3, 사하공화국의 차얀다 가스전에서 25년간 연 10억 m ³ (750만 톤)의 가스를 블라디보스톡(150km)-북한(740km)-한국(232km) 노선으로 공급 - 2009년 6월~2010년 4월 Gazprom과 가스공사의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 2011년 8월 북한은 북·러 정상회담에서 남·북·러 PNG 참여 발표 - 2011년 9월 Gazprom-가스공사 간 남·북·러 PNG 사업 장기 로드맵 체결 -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중단
2018년	2018년 한·러 정상회담에서 공동연구 합의	- 가스공사와 Gazprom은 한·러 가스 파이프라인 연결과 관련한 사업의 경제성과 기술성을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합의 - 북·미 관계 미개선으로 진척 없음

자료: 정우진.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1.13 제9기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특강자료 외 각종 자료 참고 작성.

3.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과 동북아시아 에너지 협력 추진

가. 2035 에너지 전략과 동북아시아 에너지 협력 확대 계획

원유, 천연가스, LNG, 석탄 등 주요 에너지 생산 증대

- 러시아는 최근 2035년까지 천연가스, LNG, 석탄의 수출 규모를 크게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전략인 “2035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였음.
 - 이 전략에 따르면 2035년경에는 현재와 비교해 천연가스와 석탄의 생산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원유의 생산 규모는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됨.
 - 이에 따라 러시아는 LNG 수출 규모를 2024년까지 현재의 약 2배, 2035년까지 현재의 약 4배로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반면, 2035년의 원유 수출 규모는 현재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표 23 러시아의 2035년까지 에너지 생산 및 수출 목표

구 분		2018	2024	2035
생산	원유(억 톤)	5.557	5.56~5.60	4.90~5.55
	석탄(억 톤)	4.393	4.48~5.30	4.85~6.68
	가스(억 m)	7,276	7,951~8,206	8,449~9,224
수출	원유(억 톤)	2.606	2.672~2.692	2.437~2.519
	석탄(억 톤)	2.103	2.190~2.720	2.570~3.920
	가스(억 m)	2,206	2,439~2,504	2,554~3,006
	LNG(억 m)	269	598~651	982~1,127

자료: 러시아 2035 에너지 전략(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5 года)

동북아시아 및 아태 지역 에너지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추진

- 러시아는 세계 LNG 시장에서 주요 수입국으로 부상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주요 에너지 수입국으로, 2035 에너지 전략도 이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를 주된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특히,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입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일본, 중국, 한국은 세계 3대 LNG 수입국으로 전 세계 LNG 수입의 57.2%를 점유하고 있음.³⁴⁾ 따라서 러시아는 이 지역으로 원유, 가스, LNG, 석탄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의 수출을 증대하고자 함.
- 이미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 수출의 26%를 점유하여 유럽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은 각각 러시아산 석탄 수출의 13.1%(1위)와 12.6%(2위)를 점유하고 있음.
- 이러한 전망에 따라 2035 에너지 전략에서는 동북아시아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겨냥하여, 동시베리아 및 극동러시아 지역의 생산·수출 증대 계획을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하였음.

표 24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의 에너지 생산 및 수출

구 분		2018	2024	2035
생산	원유(2018=1)	1	1.075	1.1~1.15
	가스(2018=1)	1	2.6	4.2
	석탄(러시아 전체 대비 생산 비중, %)	18	23	27
가스관	운송용량(억 m)	0	380	800
수출	전체 에너지 수출에서 아·태 지역 비중(%)	27	40	50

자료: 러시아 2035 에너지 전략. 2019(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5 года. 2019)

- 러시아는 동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에서의 천연가스 생산 증대와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을 통한 수출 증대를 추진 중임.
 - 2035 에너지 전략은 동시베리아와 극동러시아 지역에서의 천연가스 생산을 2024년까지 현재의 2.6배, 2035년까지 현재의 4.2배로 증대시키는 목표를 설정하였음.
 - 또한 2019년 12월 극동러시아 지역으로 연결된 가스관을 통해 아·태 지역으로의 연간 가스 수출량을 2024년까지 380억 m³, 2035년까지 800억 m³로 크게 증대시키고자 함.

34) 국가별 점유율은 일본 26.2%, 중국 17.0%, 한국 14.0% 등임.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9.)

- 아울러 러시아는 LNG 생산량 증대, 극동러시아 지역의 LNG 터미널 구축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으로의 LNG 수출 증대를 추진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LNG 생산량을 2035년까지 2018년의 4배 이상으로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 목표에 따르면 LNG 생산은 2018년 1,890만 톤에서 2024년에는 4,600만~6,500만 톤, 2035년에는 7,000만~8,200만 톤으로 증대됨.³⁵⁾
 - 이러한 목표는 사할린-2의 LNG 생산량 증대와 야말 LNG의 생산 개시, 북극 LNG-2 프로젝트 추진 등에 따른 것임. 또한, 러시아 정부는 기존의 주요 LNG 수출대상국인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으로의 수출 증대를 위해 극동러시아의 캄차트카에 LNG 터미널 건설을 추진 중임.
- 러시아는 석탄 생산량 증대 및 한국 등으로의 수출 증대도 추진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석탄 생산량을 2018년 4억 3,930만 톤에서 2024년까지 4억 4,800만~5억 3,000만 톤, 2035년까지 4억 8,500만~6억 6,800만 톤으로 증대하는 계획을 통해 세계 석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2018년 14%에서 2024년까지 18~20%, 2035년까지 23~25%로 높이고자 함.
 - 2035 에너지 전략에서는 러시아 전체의 석탄 생산량에서 극동러시아 지역과 동시베리아 지역의 비중을 각각 현재의 17%와 18%에서 2035년까지 21%와 27%로 증대시킴으로써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아·태 지역으로의 석탄 수출을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나. 러·중, 러·일 에너지 협력 현황과 향후 협력 추진

러시아-중국 에너지 협력 현황

- [원유 교역] 러시아-중국 송유관을 통한 양국 간 원유 교역이 활성화되고 있음.
 - 2006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2011년부터 2030년까지 러시아가 중국에 연간 1,500만 톤의 원유를 공급하는 계약이 체결됨.

35) 2035년까지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19(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5 года. 2019) p. 31.

- 현재 러시아는 2010년 개통된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ESPO)을 통해 중국으로 원유를 수출하고 있으며, 원유 수출량은 2010년 1,530만 톤에서 2016년 3,148만 톤, 2019년에는 3,320만 톤으로 증가하였음.³⁶⁾
- 2019년의 ESPO를 통한 수출량 3,320만 톤 가운데 78%는 중국으로 수출되었으며, 일본으로 7%, 한국으로 6%, 싱가포르 2%가 수출되었음.

그림 42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ESPO)



자료: 중앙일보. 2012년 12월 26일

- [천연가스 교역] '시베리아의 힘'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한 양국 간 천연가스 교역이 시작됨.
 - 2014년 5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30년 동안 러시아가 중국에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연간 380억 m³의 가스를 공급하는 계약이 체결됨. '시베리아의 힘'(Power of Siberia)으로 명명된 이 가스 파이프라인은 사하공화국의 차안다 가스전(향후 동시베리아의 코빅타 가스전 연결)에서 극동러시아로 가스를 공급하게 됨.
 - 2014년 착공된 차안다 가스전과 극동러시아 블라고베셴스크를 연결하는 2,156km 길이의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은 2019년 말에 완공되었음. 한편, 2024년경에는 블라고베셴스크에서 중국 상해까지 3,371km 길이의 가스관이 연결되어 중국에 연간 380억 m³의 가스를 공급하게 됨.

36) Russia Oil & Gas report, Fith solution. April 1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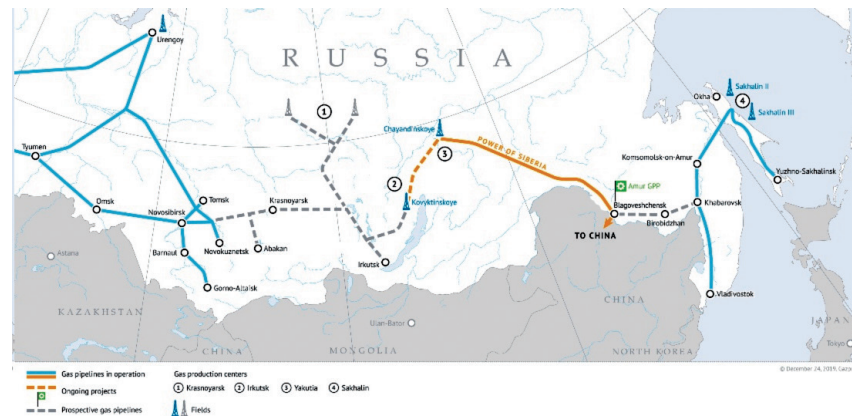
- [LNG 개발 및 교역] 중국은 러시아의 야말 LNG, 북극 LNG-2 프로젝트에 지분을 투자하고 LNG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야말 LNG 프로젝트에는 CNPC가 20%, 실크로드 펀드가 9.9%의 지분을 확보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LNG를 20년간 연 300만 톤씩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또한, 북극 LNG-2 프로젝트에 중국의 CNPC와 CNOOC(해양석유총공사)가 각각 10%의 지분을 인수하며 건설에 참여하고 있음.
- [금융 협력] 중국의 국가개발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국영금융기관들은 ESPO 건설과 야말 LNG 프로젝트에 대규모의 차관을 제공하며 에너지 협력을 지원하고 있음.

표 25 러시아와 중국의 주요 에너지 협력

구 분	주요 내용
송유관 건설 및 원유 수출	-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ESPO)을 통해 동시베리아에서 중국으로 원유 수출 중 : 타이셰트~스코보로디노~중국 다칭(2010년 9월 완공), 스코보로디노~코즈미노(2012년 12월 완공) - 원유 수출 계약 · 2009년: 2011~30년까지 ESPO 송유관과 중국 지선을 통해 연간 1,500만 톤 공급 · 2013년: 향후 25년간 총 3억 2,500만 톤의 원유를 추가로 공급
가스관 건설 및 가스 수출	-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건설: 동시베리아 차안다 가스전에서 극동의 블라고베센스크로 연결되는 2,156km 구간 완공(2019. 12월), 블라고베센스크에서 중국 상해로 연결 추진(2024년) · 30년간 연 380억 m ³ 의 가스를 공급하는 계약 체결
원유 및 가스 개발	- 2006년, Rosneft와 Sinopec이 합작기업 Udmurtneft 설립 · 2007년부터 연 600만 톤의 원유 생산 (불가 지역의 우드무르트 공화국에 위치) - 사할린-3 프로젝트 베닌스키 광구에 Sinopec이 25.1% 지분을 보유하고 지질 탐사비용의 75%를 부담하여 개발에 참여
LNG 개발 및 수출	- 야말 LNG 사업에 참여 (러시아 Novatek 50.1%, 프랑스 Total 20% 지분 보유) · 2014년 1월 CNPC이 20%, 2016년 4월 실크로드 펀드가 9.9%의 지분 인수) - 북극 LNG-2 프로젝트 지분 보유: Novatek(60%), Total(10%), CNPC(10%), CNOOC(10%), Japan Arctic LNG(Mitsui와 JOGMEC 컨소시엄, 10%) - 2014년 5월 야말 LNG 사업에서 20년간 연 300만 톤을 수입키로 합의(이 규모는 전체 생산용량인 1,650만 톤의 약 18%에 해당)
정유공장 설립	- Rosneft(49%)와 CNPC(51%)이 합작기업 Vostok Petrochemicals를 통해 천진 정제공장을 설립하고 운영 · ESPO를 통해 2020년 이후 연간 910만 톤의 원유 공급 계획
금융	- 2009년 ESPO 건설에 중국국가개발은행이 250억 달러 규모의 차관 제공 (Trnasneft에 100억 달러, Rosneft에 150억 달러) - 2016년 야말 LNG-1 사업에 중국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이 120억 달러 차관 제공

자료: 각종 자료 참고 작성

그림 43 러시아의 동부 지역 가스관 현황



가스전: 1. 크라스노야르스크(유름체노-토롬스코예, 소빈스코-파이킨스코예 가스전) / 2. 이르쿠츠크(코빅타 가스전) / 3. 야쿠츠크(차안다 가스전) / 4. 사할린 1·2·3 유전 및 가스전
 가스 파이프라인: —(하늘색) = 운영 중 / ---(노란색) =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 ---(회색) = 계획 중

자료: Gazprom (<http://www.gazprom.com>)

러시아·일본 에너지 협력 현황

- [에너지 교역] 일본은 세계 최대의 LNG 수입국이자 러시아산 LNG의 최대 수입국임.
 - 일본 기업들은 지분을 보유한 사할린-1·2에서 원유와 LNG를 생산하여 자국으로 도입해 내수에 충당할 뿐 아니라 한국, 대만, 중국 등지로 수출도 하고 있음.
- [에너지 개발 협력] 일본 기업들은 러시아의 사할린 유전 및 가스전 개발과 북극 LNG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고 있음.
 - SODECO³⁷⁾와 미쓰이, 미쓰비시 등은 1996년부터 사할린-1·2 유가스전 개발에 참여하여 생산된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고 있음.
 - 사할린-2에서는 미쓰이(지분율 12.5%)와 미쓰비시(지분율 10%)가 Gazprom(지분율 50%), Royal Dutch Shell(지분율 27.5%) 등과 공동으로 '사할린에너지사'를 설립하여 1994년 에너지 자원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1999년부터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음.

37) 일본 경제산업성(50.0%), 이토추(16.29%), JAPEX(15.3%), 마루베니(11.68%), INPEX(5.74%) 등 일본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컨소시엄.

- 사할린-1에서는 SODECO(지분율 30%)가 ExxonMobil(지분율 30%), Rosneft(지분율 20%), 인도 국영석유공사(ONGC, 지분율 20%)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996년 에너지 개발을 시작하여 2006년부터 원유 및 천연가스를 생산해 사할린에서 하바롭스크주의 드-카스트리항 터미널로 연결된 송유관과 가스관을 통해 수출하고 있음.
- 미쓰이와 일본 석유·가스·철강 국영기업이 참여한 일본 컨소시엄은 2019년 6월 러시아 Novatek에서 북극 LNG-2 프로젝트의 10%의 지분을 매입하였는데, 일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가 이 지분 매입액의 75%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짐.
- [운송 협력 추진] 일본 마루베니와 MOL은 Novatek이 계획 중인 야말 LNG에서 생산되는 LNG를 처리하는 캄차트카 환적기지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표 26 러시아와 일본의 주요 에너지 협력

구분	내용	특징
사할린 에너지 개발 참여	사할린-1 프로젝트	- ExxonMobil(지분율 30%), SODECO(지분율 30%), 인도 석유가스공사(ONGC, 지분율 20%), Rosneft(지분율 20%)로 구성
	사할린-2 프로젝트	- '사할린에너지'(Gazprom 50%, Royal Dutch Shell 27.5%, 미쓰이 12.5%, 미쓰비시 10%)사가 개발 진행 중 · 이 프로젝트의 가스액화플랜트 건설에 일본의 동양엔지니어링 등이 참여
사할린 에너지 도입	사할린-1의 원유, 사할린-2에서 생산된 원유, LNG 도입	- 사할린-1·2의 원유 도입은 일본 전체 원유 수입액의 약 6%, 사할린-2의 LNG 도입은 일본 전체 LNG 수입액의 약 9% · 도쿄가스, 도쿄전력, 큐슈전력 등 일본 에너지 기업들이 사할린-2에서 15~24년간의 장기 계약을 통해 LNG를 도입
LNG 개발	북극 LNG-2 프로젝트에 지분 참여, 향후 도입 가능성	- 2019년 6월 '일본 Arctic LNG'(미쓰이-JOGMEC 컨소시엄)이 10% 지분 확보
금융	사할린-2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일본 컨소시엄에 금융지원	- 일본 JBIC은 미쓰이, 미쓰비시 컨소시엄에 1997년 11.6억 달러, 2008년 37억 달러의 자금 융자

자료: KMI 동향분석 132호 『일본의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전략과 시사점』, August 2019 등 자료 참고

Ⅵ. 한·러 경제 협력 확대 방안

한·러 경제협력의 성과와 전망

● 성과 달성 부문과 전망

- 교역에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과 함께 화장품, 건설장비 등으로 주요 수출품이 확대되었으며, 투자에서는 자동차·식료·전자·호텔 등의 부문에서 성과를 거두었음.
- 에너지 부문에서는 원유·석탄·LNG 등의 수입 증가와 함께 채빙 LNG 운반선 수주 등에서 성과를 거둠.
- 향후 주요 수출품의 수출 규모 확대와 점진적인 수출품목의 다변화가 예상됨. 또한 양국 간의 조선 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성과 미흡 부문과 협력 방안

-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바이오헬스 등의 수출성과는 미흡하며, ICT 등 혁신산업 부문의 협력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현재 논의되고 있는 러시아 및 유라시아경제연합과의 FTA 체결 등을 통해 향후 교역 및 투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성과 부진 부문과 협력 가능성

- 극동러시아에서의 교통·물류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과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등에서의 양국 협력은 부진함.
- 향후 양국 정부 간의 협력 확대를 통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며,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해제 및 한반도 평화 정세 등의 상황변화에 따라 철도 및 가스관 연결 추진과 남·북·러 협력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1. 교역 및 투자 협력 확대 방안

FTA 체결을 통한 교역 및 투자 확대

- 한·러 양국이 협상 중인 서비스·투자 FTA 체결을 통해 경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토대를 향후 상품 FTA 체결을 추진할 수 있음.
 - 2018년 6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가 합의되었으며, 2019년 6월 20일 공식적으로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2020년 7월 초까지 다섯 차례의 공식 협상이 진행되었음.
 - FTA 체결을 통해 의료, 물류, 관광, 유통 등 서비스 부문의 러시아 시장 진출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한·EAEU FTA 체결을 통해 러시아 및 EAEU 국가들과의 교역을 확대할 수 있음.
 - 한국과 EAEU는 2016년부터 정부 간 협의회를 통해 FTA 추진을 위한 민간 공동연구를 시행하였으며 공동실무작업반을 설치하여 FTA 체결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한국 정부는 2020년 EAEU와의 FTA 협상 개시를 고려하고 있음.
 - 현재 EAEU에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 아르메니아 등 5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향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가입도 예상되므로 한·EAEU FTA 체결은 한국과 유라시아 지역 간의 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한·러 및 한·EAEU FTA 체결을 통해 자동차 등의 수출이 증가하고 상품수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³⁸⁾

한·러 양국의 상호 보완적인 교역 구조를 활용한 교역 확대

- 한·러 교역에서 한국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등 제조업 제품 위주의 수출을 하고, 러시아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원자재 위주의 수출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교역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38) 정재원, 「신북방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러시아/EAEU FTA」, KERI Insight 20-2, 2020. 이 보고서는 한-러시아/EAEU FTA 체결이 한국의 실질 GDP 0.061%, 총수출 0.497% 증대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 최근 화장품, 건설장비, 의료기기 등의 수출이 증가하며, 향후 수출상품이 다각화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유망 제조업 품목을 발굴하여 수출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산업별 비교우위지수(CA)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 화장품, 아연도금강판 등이 높은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며, 20대 수출 품목에 포함된 건설장비, 타이어,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전자응용기기 등도 수출 증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향후 러시아 정부조달 시장 진출을 통한 교역 확대 추진

- 러시아 정부조달 시장은 점차 개방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를 활용한 수출을 고려할 수 있음.
 - 러시아는 현재까지 WTO-GPA(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2013년 5월 29일 WTO-GPA 옵저버 국가(Observer Status)로 승격되었으며 2016년 8월 정식가입을 신청한 바 있으므로, 향후 가입이 이루어질 경우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전망됨.³⁹⁾
 - 외국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사례로는 ICT 부문에서 중국의 화웨이가 러시아 스베르방크에 IT 설비를 공급하였으며, 독일의 지멘스가 의료장비 유지보수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들 수 있음.⁴⁰⁾ 따라서 이 부문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중소기업들이 러시아의 ICT 관련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양국 정부의 정책과 관련하여 협력 가능성이 큰 부문

-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중점 사업 부문에 포함된 러시아 정부의 육성 산업 부문들에서 협력 추진이 가능함.
 - 인프라·환경 협력 확대(산업단지 조성, 폐기물 관리사업, 수력발전), 보건·의료 협력 확대(한국형 의료시스템 ODA, 국내 연수 등), 농수산 분야 진출 활성화(종자 보급, 수산물가공단지 조성 등) 등의 부문에서 협력이 유망함.

39) 양평섭 외,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 20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118~130.

40) 코트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및 역외 CIS지역 국가별 공공조달시장 진출전략』, 2017. p. 15.

ICT, 디지털 부문 등 혁신산업 부문 협력 추진

- [ICT]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5G, 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추진과 관련 분야(스마트팜 등)에서의 생산 협력, '스콜코보 혁신센터'에서의 한·러 협력 추진이 유망함.
- [소재·부품·장비] 소재·부품·장비 부문에서 한·러 기술 협력을 통해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국산 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추진할 수 있음.
- [보건·의료 분야] 극동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의 의료 협력을 우선 추진하고, 다른 의료설비 낙후 지역으로 협력을 점차 확대할 수 있음.

러시아 산업정책 추진 핵심 기관들과의 협력 강화

- 산업발전펀드, 혁신촉진펀드, 스콜코보 등 러시아 정부의 핵심 산업정책 추진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함.
 - 특히, 산업발전펀드와 도시개발펀드 등은 러시아 전 지역에 지부를 개설하여 지역 차원의 사업에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러시아 각 지방으로의 진출을 추진할 수 있음.

2. 에너지 협력 확대 방안

에너지 교역 확대

-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중동 산유국들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 있으며 동시베리아 및 극동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개발을 통해 동북아시아로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러시아와 에너지 교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한국의 수입이 증가하는 LNG 교역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LNG 수입액은 1990년 4.6억 달러에서 2000년 38.8억 달러, 2010년 170억 달러, 2019년 205.7억 달러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 러시아는 2009년 처음으로 LNG 수출을 시작한 이후 북극 지역의 LNG 개발 확대를 통해 수출량을 늘리고 있으며, 2018년 269억 m³에서 2024년 598억 ~651억 m³, 2035년에는 982억~1,127억 m³로 수출량을 증대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극동러시아와 북극 지역에서 생산되는 러시아산 LNG의 수입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러시아의 주요 수출 지역인 유럽의 에너지 소비 정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정체와 수입다변화 등에 대응하여 러시아 정부가 동북아시아로의 수출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한·러 에너지 교역 협력 활성화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유럽은 원유, 천연가스 등 전통에너지의 소비가 감소하고 있고, 수입선도 미국, 중동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어 러시아산 에너지의 대유럽 수출 규모는 정체되고 있지만,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동북아시아와 아·태 지역으로의 에너지 수출 규모는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러시아는 최근 “2035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여 동시베리아 및 극동러시아의 개발 확대를 통한 동북아시아 및 아·태 지역으로의 수출 비중을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한·러 에너지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⁴¹⁾

에너지 관련 선박 수주 및 설비 수출 등의 부문에서 협력 필요

- 올해 러시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쇠빙 LNG 운반선, LNG 추진선 등의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기존의 한·러 협력 성과를 토대로 한국 기업이 수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러시아는 북극 LNG-2 프로젝트에 필요한 쇠빙 LNG 운반선 10척을 추가로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⁴²⁾므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러시아에서 에너지 관련 선박을 수주한 경험이 있는 우리 기업의 기존 성과를 토대로 수주를 추진할 수 있음.

41)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5 года. 2019(러시아 2035 에너지 전략. 2019).

- 향후 선박연료의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LNG 추진선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의 기존 성과를 토대로 LNG 추진선 수주를 기대할 수 있음.

조선 부문 협력 추진

- 극동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에서의 양국 선박 건조 협력, 한국의 러시아 LNG 쇠빙선 건조 등의 성과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에너지 자원 운송 및 운송 인프라 협력

- 러시아가 추진하는 LNG 터미널 건설의 참여와 동북아시아 LNG 허브 구축 부문에서 협력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러시아는 동북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캄차트카 지역에 LNG 터미널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국내에 북극항로를 통해 운송되는 LNG 물류 연계 항만과 동북아시아 LNG 허브 구축을 고려할 수 있음.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울산 북항⁴²⁾과 여수에서 대규모 LNG 터미널 건설 추진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여수 LNG 터미널은 향후 동북아시아 LNG 허브 터미널로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⁴³⁾

한·러 전력 연계 및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검토

- 한·러 전력 연계를 위한 공동연구가 추진 중임.
 - 2018년 6월 한국전력과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로세티는 양국의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공동연구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음. 이를 통해 양측은 2022년까지 타당성 조사 등 공동연구를 완료한다는 목표에 합의하였음.

42) 2019년 11월 울산 북항에서 동북아 오일허브 건설 사업 추진에 관한 투자협약식이 체결됨. 한국석유공사, SK가스, MOLCT(싱가포르)가 각각 49.5%, 45.5%, 5%의 지분을 가진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 Korea Energy Terminal)은 2020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울산 북항 내에 273만 배럴(석유제품 138만 배럴, LNG 135만 배럴) 규모의 탱크 터미널을 건설하고 2024년 4월부터 상업 운영을 추진할 예정임.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 북항사업 합작투자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9년 11월 13일

43) 2020년 3월 (주)한양이 전남 여수에 ‘동북아 액화천연가스(LNG) 허브 터미널’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발표함. 이 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총 1.3조 원을 투입해 1단계로 LNG 저장탱크와 최대 12.7만 톤 규모의 선박 접안 부두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임. 회사 측은 이곳에서 발전용, 산업용 수요처에 액화천연가스를 공급하고 LNG 저장(병커링), 트레이딩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한겨레신문 2020년 3월 3일

- 한·러 전력 연계는 전력이 부족한 북한의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
- 향후 장기적 차원에서 한국, 러시아, 몽골 등이 참여하는 슈퍼그리드 구축을 고려할 수 있음.
 - 앞서 2016년 3월 한·중·일 3개국은 슈퍼그리드 공동연구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한·중 전력망 공동연구 등을 진행한 바 있음.
 - 2017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을 제안한 바 있음. 이후 산업부에서는 2017년 12월 발표된 ‘2017~31년까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한·중·일, 한·러 송전망 구축을 통해 극동시베리아 및 몽골 고비 사막의 청정에너지(천연가스, 풍력)를 동북아시아 국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음.⁴⁴⁾
 -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은 참여한 국가들에게 계절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보장할 수 있는 경제적 특성과 함께 동북아시아 국가 간의 역내 협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그림 44 한·중·러·일 전력망 연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2017년 12월.

44)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산업통상자원부, 2017년 12월 29일.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 검토

- 향후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안정적인 가스 공급이 요구되므로 이를 위해 남·북·러 가스관 연결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은 참여하는 한국, 북한, 러시아 모두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특히 가스관 연결은 경제적 성과와 함께 가스관 연결을 통해 남북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3. 인프라 협력 확대 방안

향후 유망 협력 인프라 부문 협력 방안

- 러시아 정부의 ‘러시아 연방 교통전략 2030(Russian Federation Transport Strategy 2030)’, ‘교통 인프라 개보수 통합계획 2024 (Integrated Plan of Renovating and Expanding Trunk Infra Through 2024)’ 등에 따라 도로와 철도 부문에서 개보수나 확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도로망 건설 사업의 30%를 민간투자자로 조달할 계획이어서 향후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⁴⁵⁾
 - 국토가 넓은 러시아는 철도를 교통의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고려할 수 있음.
-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
 - 러시아는 현재 ‘석유화학 콤플렉스 개발 2025’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극동 러시아 연해주 등에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 건설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플랜트 사업으로의 진출을 추진할 수 있음.

45) 강명규, 「러시아 건설업 동향과 협력 방안」, KDB, 2019.8.12

- 러시아 정부는 항만을 통한 에너지 자원 및 곡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극동러시아 지역의 항만 인프라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 정부는 주요 수출품인 석탄, 원유, LNG 등의 물류 효율화를 위해 극동러시아 항만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에도 한국 기업의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미 한국은 러시아 측의 제안으로 극동러시아의 슬라비얀카 항만, 볼쇼이카멘 물류단지, 포디아폴스키 항만 등의 개발 타당성 조사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향후 한국 기업들이 이들 항만 인프라 개발 협력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러시아 현지의 물류 전문가들에 따르면 슬라비얀카 항만의 컨테이너 및 곡물 터미널 건설 투자비용은 4.5억~5.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평가됨.⁴⁶⁾ 또한 향후 바니노항, 보스토치니항, 나호트카항의 석탄 부두 현대화, 자루비노항 곡물 터미널 건설 등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4년까지 투자 비용이 약 2.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⁴⁷⁾
 - 극동러시아 항만 개발은 중국으로 연계된 프리모리예-1, 2의 도로, 철도 건설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향후 중국 투자자들이 추진할 가능성이 큼.
- 교통·항공 인프라 건설 및 운영 부문으로의 진출을 고려할 수 있음.
 - 러시아 정부는 공항 인프라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하바롭스크 공항 운영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향후 다른 러시아 공항에서의 건설이나 운영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극동러시아 산업단지 설립 및 경제특구 등에서 양국 기업 협력

- LH와 극동투자수출지원청, 극동개발공사의 협력으로 극동러시아 연해주의 나제진스크(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 인근)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국 산업단지 건설은 양국 간의 주요 사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46) <https://portnews.ru/news/289976/> 2020.01.17

47) <https://portnews.ru/news/300088/> 2020.08.12

- 극동러시아의 선도개발구역이나 자유항 등 경제특구에 첨단 산업과 관련된 양국 합작 기업 설립이나 러시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루스키 섬 IT 단지와의 협력 추진을 고려할 수 있음.

[부 록]

<부록 1> 신북방정책
<부록 2> 러시아 석유화학 산업 현황

<부록 1> 신북방정책

1. 신북방정책 추진 과정

표 27 신북방정책 관련 추진 일지

구 분	내 용	내용	의의
2017. 7월	국정과제 발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신북방정책 발표
		한반도 新경제구상	환동해경제벨트를 통해 북방 지역과 한반도동해권의 협력 방안 제시
2017. 8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출범	신북방정책 추진 대통령 산하 정부 위원회 출범	여러 정부 부처를 포함하는 전담 정부 기관 출범
2017. 9월	블라디보스토크 동방 경제포럼	9 Bridge 전략	러시아와의 9개 주요 협력 분야 제시
2018. 4월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新경제구상	남·북·러 경제 협력 방안 마련 및 북한 측에 구상 제시
2018. 6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	신북방정책 중점 추진과제 발표	주요 협력 부문 제시
2018. 8월	8·15 기념식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 연결 물류망 제안
2020. 2월	2기 북방위 출범	2020년 신북방협력의 해 발표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긴밀한 협력 추진

자료: 각종 자료 참고하여 저자 작성

- (개념) 신북방정책은 한국과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대륙 전략으로서, 한국과 동북아 및 유라시아 국가 간의 다자협력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책과 연계하는 정책

그림 45 신북방정책의 비전과 4대 목표



신북방정책 4대 목표



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추진 방향) 북방 지역 국가들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 개발 참여 및 도입, 유라시아와 한반도의 물류 연계, 이 지역으로의 한국 상품 수출 확대, 북한과의 협력 추진 등
- (협력 대상)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국 동북 3성, 몽골 등 14개국
 -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시베리아횡단철도를 통해 물류망 구축이 용이한 러시아, 에너지 자원과 우리 기업의 진출 경험이 풍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 기타 유라시아 국가들, 중국 동북 3성, 몽골 등을 포함

그림 46 북방경제협력 대상국



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2. 신북방정책의 내용

- (9 Bridge 전략) 수산, 농업, 전력, 철도, 북극항로, 가스, 조선, 산업단지 등 9개의 중점 협력 분야 선정
 - 수산(물류, 가공시설 조성)
 - 농업(연해주 농업기지 및 곡물저장시설 구축)
 - 전력(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 철도(시베리아횡단철도-남북철도 연계)
 - 북극항로(상업 이용 활성화)
 - 가스(LNG 도입 확대 및 가스관 연결)
 - 조선(쇄빙 LNG 운반선 건조 및 조선소 건설)
 - 항만(극동항만 현대화)
 - 산업단지(연해주 공단 조성)

그림 47 9 Bridge 전략



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16대 중점 추진과제) 기존의 9 Bridge 전략에 관광, 보건·의료, 교육 부문 등이 추가된 중점과제 제시
 - 소다자협력 활성화로 동북아 평화 기반 구축
 - ① 초국경 경제 협력 (GTI 활성화, 나진-하산 등 경제특구 다자간 개발)
 - * GTI: Great Tumen Initiative
 - ② 환동해 관광협력 (크루즈, 두만강 관광특구)
 -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이익 공유
 - ③ 유라시아북합물류망 구축 (시베리아횡단철도, 남북철도, 신규 항로 개설 등)
 - ④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한·중·일, 남·북·러 전력망 연계)
 - ⑤ 한러 천연가스 협력 (LNG 및 PNG 협력)
 - ⑥ 북극항로 진출 (해운 및 조선 신시장 개척, 극동 지역 항만 개발 등)
 - 산업 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 ⑦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 (한·러 혁신센터 개소 등)
 - ⑧ 인프라·환경 협력 확대 (산업단지 조성, 폐기물 관리사업, 수력발전)
 - ⑨ 산업 협력 강화 (과학기술 및 ICT 협력, FTA 추진 등)

- ⑩ 금융접근성 강화 (금융 협력 이니셔티브, 전대금융 등)
- ⑪ 보건의료 협력 확대 (한국형 의료시스템 ODA, 국내 연수 등)
- ⑫ 농수산 분야 진출 활성화 (종자 보급, 수산물가공단지 조성 등)
- 인적, 문화 교류 확대로 상호 이해 증진
- ⑬ 문화, 체육, 관광 협력 확대 (세종학당, K콘텐츠 수출 등)
- ⑭ 학술단체 교류 및 인력 양성 (북방지역전문가 육성, 네트워크 구축)
- 추진체계 구축
- ⑮ 위원회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대국민 소통 활성화, 기업 진출 지원)
- ⑯ 다각적인 외교 협력 기반 조성 (양자 및 다자 협력, ODA 및 KSP 사업)

<부록 2> 러시아 석유화학 산업 현황

1. 러시아 석유화학 산업 규모는 러시아 GDP의 1.5%이며, 세계 20 위 수준으로 매우 협소하고 경쟁력은 다소 열위에 있음.

- 세계 석유화학생산 제품 중 러시아 비중은 1%이며, 제품별로 폴리프로필렌(PP)은 2.0%, 폴리에틸렌(PE)은 1.5%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러시아의 석유화학제품 생산은 폴리머 계통에 집중되어 있으며, PVC(폴리염화비닐)와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LLDPE)은 현지 생산보다 소비가 높은 제품
- 화학제품 수출은 원료, 합성고무, 무기질 비료 등과 같은 저부가가치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제품은 수입의존도가 높음
- 러시아의 석유화학제품 수입국 중 한국의 순위는 높은 편으로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은 2위에 해당

2. 2012년 러시아연방 에너지부의 '2030 석유·가스 화학산업 발전 플랜(Plan for the development of gas and petrochemical industry 2030)' 발표 이후 석유화학산업의 높은 성장세 시현

- 연방정부의 화학산업 발전 플랜은 석유화학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화하고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의 법인세 및 국내 소비세(Excise Tax)를 15년간 감면하겠다는 방침이며, 이를 통해 러시아 석유화학산업에 400억 달러의 민간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기대
- 지난 15년간 세계 석유화학제품 생산 증가율은 연평균 3%였지만, 러시아는 이보다 높은 7%의 고성장세 시현


3. 러시아 석유화학제품 경쟁 동향

- 러시아 현지 석유화학업체 상위 5개 업체는 Sibur, Taif, Rosneft, Lukoil, Gazprom
 - Rosneft, Lukoil, Gazprom은 석유·가스 업스트림 사업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을 직접 조달해 왔으나, 러시아 연방정부의 독점방지법에 따라 Kazanorgsintez, Bashkir Soda 등으로 공급선 확장
 - Sibur는 석유화학제품에 특화된 대기업으로서 다양한 공급선 보유

표 28 러시아 현지 석유화학업체

회사	직원 수	매출액 (달러)	주요 사항
PJSC SIBUR 보유 	26,000명	91억	- 1995년 모스크바에 설립 - 주요 제품: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폴리프로필렌(PP), 합성 고무(3개 이상),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특수 고무 - 플라스틱, 유기합성 제품 제조 공장 13개 보유
PJSC Nizhnekamskneftekhim (TAIF Group of 100% subsidiary of LUKOIL Companies의 자회사)  НИЖНЕКАМСКНЕФТЕХИМ	17,000명 이상	30.1억	- 1967년 니즈네캄스크(타타르스탄)에 설립 - NKMK로도 알려졌으며, 러시아 최대 합성 고무와 플라스틱 제조사
Poliom LLC  Омский завод полипропилена	251~500명	2억 3,870만	- 2005년 옴스크에 설립 - GK Titan, SIBUR, Gazprom Neft의 합작 투자 회사이며, Basell(Netherlands) 회사 기술로 건설 - 기술 및 엔지니어링 장비 공급 업체는 MaireTecnimont(이탈리아) - 프로젝트 총비용은 110억 루블 이상
LLC Stavrolen (LUKOIL의 100% 자회사) 	501~1,000명	5억 5,000만	- 1975년 스타브로폴에 설립 - Lukoil-Neftekhim 그룹 계열의 석유화학 공장 - 주요 제품: 아크릴로 니트릴, 합성 나이트론 섬유, 페놀,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등

회사	직원 수	매출액 (달러)	주요 사항
Gazprom Neftekhim Salavat (PJSC Gazprom의 100% 자회사) 	7,000명	28억	- 1948년 살라바트(바시키르 공화국)에 설립 - 제조과정: 탄화수소 처리 과정 전 주기 수행 - 제품: 경유, 연료유, 폴리스티렌, 고압 폴리에틸렌 등 - 중국, 브라질, 영국, 서유럽 및 발트해 연안국을 포함해 30개국으로 수출 - 정유 공장, 가스 화학 공장, 단량체 공장 보유
JSC Angarsk Polymer Plant (Rosneft의 100% 자회사) 	1,000명 이상	1억 1,100만	- 1974년 이르쿠츠크 지역의 앙가르스크에 설립 - JSC 앙가르스크 종합체 공장은 매년 2억 톤의 에틸렌, 1만 톤의 프로필렌 및 6만 톤의 벤젠을 생산함. 생산된 에틸렌의 일부는 공장에서 고밀도 폴리에틸렌, 스티렌 및 폴리스티렌 생산에 사용됨. - 원재료 주요 공급사는 LPG를 공급하는 앙가르스크 석유화학 회사와 Achinsky 정유 JSC
PJSC Kazanorgsintez (TAIF Group of Companies의 자회사)  ОТКРЫТОЕ АКЦИОНЕРНОЕ ОБЩЕСТВО КАЗАНЬОРГСИНТЕЗ	5,000명 이상	13억	- 카잔(타타르스탄)에 1958년 설립 - 제품: 에틸렌, 폴리에틸렌, 폴리카보네이트, PE 파이프, 비스페놀, 페놀, 아세트, 에틸렌 글리콜, 에탄올 아민 및 기타 유기 합성 제품 - 전 세계 23개국에 수출
PJSC "Ufaorgsintez" 	1,000명 이상	4억 6,100만	- 우파(바시키르 공화국)에 1956년 설립 - Bashneft사와 합병(Bashneft사는 Rosneft사 소유) - 주요 제품: 고분자 재료(고압 폴리에틸렌, 에틸렌-프로필렌 고무, 케이블 산업용 폴리에틸렌 구성물), 폴리에틸렌 필름을 포함한 소재 - 핀란드, 터키, 동유럽 및 서유럽, 발트해 연안국, 중국, CIS 등 20개국으로 수출


회사	직원 수	매출액 (달러)	주요 사항
Bashkir Soda Company JSC(BSK JSC) 	약 5,000명	7억 1,600만	- 2013년 OJSC Soda와 OJSC Kaustik 이 합병되며 설립 - 주요 제조품: 가성소다, 염소 및 염화비닐수지

출처: Kotra(<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list/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6866>),

- 러시아는 정밀도가 높거나 특수 소재 석유화학제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다국적 석유화학 기업들과의 관계가 밀접
 - 장기간에 걸친 대러시아 수출, 기술 이전, 투자 등으로 관계가 밀접한 다국적 기업으로 BASF, Arkema, DOW 등이 있음
 - 프랑스 기업 Arkema는 신소재 폴리머 개발 부문에서 러시아와 기술 협력을 다각화하고 있는 기업

표 29 러시아에 진출한 외국 석유화학업체

회사	직원 수	매출액 (달러)	주요 사항
독일 BASF 	342명 (러시아 사무소) 115,490명(세계)	3억 5,000만 (러시아 사무소) 727억 (세계)	- 1865년 설립 - 주요 제조품: 수지, 접착제, 전자 등급 화학 물질, 산업용 가스, 기본 석유화학 물질 및 무기 화학 물질, 폴리아미드 전구체, 폴리아미드 및 생분해성 플라스틱 - BASF 자회사 Wintershall Holding AG는 석유 가스 탐사 담당: 중부 및 동유럽에서 러시아 Gazprom과 협업
프랑스 Arkema S.A 	해당 없음 (러시아 사무소) 20,000명 (세계)	해당 없음 (러시아 사무소) 99억 (세계)	- 2004년 설립 - 55개국에 지사를, 전 세계에 13개의 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유럽, 북미, 아시아 및 기타 국가에 총 136개의 공장을 보유 - 주요 사업 분야: 감광액, 공업용 화학물질 등
미국 The Dow Chemical Company 	해당 없음 (러시아 사무소) 56,000명 (세계)	해당 없음 (러시아 사무소) 481.5억 (세계)	- 1897년 설립 - 약 160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음. - 주요 제조품: 폴리스티렌, 폴리우레탄,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및 합성고무 등
네덜란드 Lyondell Basell Industries N.V. 	(러시아 사무소) 19,450명 (세계)	해당 없음 (러시아 사무소) 380억 (세계)	- 미국 Lyondell Chemical이 네덜란드 Basell Polyolefins를 인수하며 2007년에 설립 - 제조품: 에틸렌, 프로필렌, 프로필렌 옥사이드, 에틸렌 옥사이드, 메탄올, 아세트산 및 그 유도체를 포함한 기본 합성 제품 - 모스크바에 공식 대표 사무소 보유

회사	직원 수	매출액 (달러)	주요 사항
벨기에 Solvay 	35명 (러시아 사무소) 24,500명 (세계)	3,180만 (러시아 사무소) 116억 (세계)	- 1863년 설립 - 53개국에 145개 생산 공장 보유 - 본사: 벨기에 브뤼셀 - 제조품: 폴리아미드(석유 및 가스 탐사 및 제조부터 플라스틱 제작 공정에 이르기까지 폴리아미드 풀 공정 과정 보유) - 모스크바에 공식 대표 사무소 설립
한국 Korea Engineering Plastics (KEP) 	-	-	- 1987년 설립 -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폴리옥시메틸렌 제조사 - 제조품: 폴리옥시메틸렌(POM, 브랜드 명 Kepital), 폴리아미드(PA, 브랜드 명 kepamide) - 러시아 유통사: Rusplast
중국 Xiamen LFT composite plastic Co.,Ltd 	-	-	- 2009년 설립 - 2009년 Alibaba 플랫폼을 통해 수출 시작(러시아 포함)

출처: Kotra(<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list/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6866>.)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 러시아가 부족한 석유화학제품군의 수출 증대 모색
 - 한국 석유화학제품 중 대러시아 수출 유망 제품은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LLPE) 등

- 다만 PP, PE의 경우는 현지 생산능력이 높아지고 있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품질 경쟁력이 요구됨.
- 에틸렌 생산능력 기준 세계 4위의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과 석유·가스 자원이 풍부한 러시아 간 협력사업 기회 발굴 필요
 - 러시아 현지 석유화학단지 조성에 한국 기업이 진출할 경우 숙련된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고부가가치 부문에서는 일본과의 경쟁에서 열위 예상
 - 또한 이미 세계 석유화학 산업이 공급과잉 기조이며, 한국은 국내 생산 50% 정도를 수출하고 있어 추가적인 해외 플랜트 투자는 신중함이 요구됨.
 - 러시아의 석유·가스 업스트림 산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다운스트림(석유화학) 부문의 기술 및 운영 노하우 전수와 같은 장기적으로 상호 유익한 협력 추진

[참고문헌]

- 강명구. 「러시아 건설업 동향과 협력 방안」, KDB, 2019.8.12
- 김학기. 「제4기 푸틴 러시아 정부의 전략과제와 한·러 협력」, 『KIET 산업경제』, 2018.7.
- 김현수. 「2020 러시아 경제전망 및 수출 유망품목」 Trade Brief, 2020.1.30. 한국무역협회.
- 김현수·박승혁. 「최근 러시아 경제동향 및 한·러 경제협력 확대 방안」, 2018년 6월. 한국 무역협회.
- 박지원. 「러시아 혁신성장정책의 평가와 협력 시사점」, KOTRA, 2019.
- 서동주·장세호. 「한러 전략적 협력의 쟁점과 과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9.
- 양평섭 외.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 20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코트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및 역외 CIS지역 국가별 공공조달시장 진출전략」, 2017.
- 정재원. 「신북방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러시아/EAEU FTA」, KERI Insight 20-2, 2020.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산업통상자원부, 2017년 12월 29일.
-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 북항사업 합작투자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9년 11월 13일
- 산업통상자원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2017년 12월
- 이성규. 「한·러 협력의 부문별 성과와 과제: 에너지 부문」, 2019년 12월 신북방정책 세미나 발표문.
- 정우진.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1.13 제9기 차세대 에너지 리더 과정 특강자료.
- KMI 동향분석 132호 「일본의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전략과 시사점」, August 2019.

- Нефтегазовый комплекс России, 2018 (러시아 석유가스 콤플렉스, 2018).
- Состояние 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минерально-сырьевых ресурс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9 (러시아 광물-에너지 자원 현황, 2019).
-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5 года, 2019 (러시아 2035 에너지 전략, 2019).
- 아시아경제 2020년 4월 20일
- 중앙일보 2012년 12월 26일
- 한겨레신문 2018년 10월 25일
- 한겨레신문 2020년 3월 3일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2020.4.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stat.kita.net)
- 러시아통계청(rosstat.gov.ru)
- <https://www.autonews.ru> 2020.8.26.
- <http://vz.ru> 2019.8.22.
- <https://www.kommersant.ru> 2019.4.30.
- <https://www.autostat.ru>
- Eurostat
- e-cis.info
- eaeunion.org
- www.gipp.ru
- www.ved.gov.ru
- <https://www.hyundai.com>
- British Petroleum(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9.
- Gazprom (<http://www.gazprom.com>)
- Russia Oil & Gas report, Fith solution, April 1 2020.
- <https://1prime.ru>
- www.eeg.ru
- <https://www.marinelink.com>
- <https://portnews.ru>

한·러 수교 30년
특별연구자료

한·러 경제 협력의 분야별 확대 방안

발행일	2020년 10월 30일
발행인	한국수출입은행
발행처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여의도우체국 사서함 641
인쇄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쇄사업소
I S B N	979-11-85867-55-7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